

22일 Market Index			
▲ 코스피	4952.53	▲ 코스닥	970.35
	(+42.60)		(+19.06)
▼ 금리 (국고채 3년)	3.109	▼ 환율 (원·달러)	1469.50
	(-0.029)		(-1.80)

“계획안 동참” vs
“MBK 중단하라”
홈플러스 회생안 내용
04



꿈의 5000 뚫었다... K-증시, 46년 만의 새 역사

4000선 이후 약 두달반 만의 성과
5019.54까지 오르다 4952.53 마감
AI발 반도체·자동차주 상승 영향
미, 유럽 8개국 관세철회도 한 몫

한국 증시가 ‘꿈의 지수’로 불렸던 오천 피(코스피5000) 시대를 열었다. 한국 주식시장 역사가 시작된 지 70년 만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7% 상승한 4952.53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5019.54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선 후 약 2달 반 만에 이룬 성과며, 1980년 코스피 지수 산출 이후 46년 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증시가 대한증권거래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1956년 3월 3일 이후로는 70년 만이다.

이날 하루만 보면 1등 공신은 트럼프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면서 다우존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나스닥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고, 이날 한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2면·3면> ‘오천피’를 이끈 주역은 인공지능(AI)



코스피가 꿈의 숫자로 여겨지던 ‘오천피’에 도달하며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들이 코스피 5000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한때 5019.54까지 상승했다. /뉴시스

I)발 훈풍에 체력이 강해진 반도체주와 자동차주였다. 코스피가 4000선을 처음 넘어선 작년 10월 27일부터 이날 5000선을 돌파하기까지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770조165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512조81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6%를 차지했다. 현대차도 ‘오천피’를 이끈 마차 중 하나다. 현대차는 차세대 로봇 ‘아틀라스 열풍’에 힘입어 올해 78% 상승했다. 국내의 시장 안팎에서는 12·3 계엄사

태를 극복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줬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큰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성장의 불씨’를 살려냈다.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그림도 그렸다. 증시 활성화 정책도 내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추가 부양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진했

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비과세해주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한국증시가 ‘K프리미엄’을 받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본다.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된 올해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과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하는 구조다. 성장률도 바닥권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상향하며 확장재정과 내수 회복이 성장 방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소폭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선진국 평균(1.8%)보다 높다.

한국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54.3%에 달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현재 코스피 5000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도 중장기 ‘코리아 리레이팅’ 변수로 거론된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社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 밀도·경량화·안정성 핵심
국내 배터리 3사에 강점·기회 요인
중국 업체들과 격차 확대 기대감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이은 미래 먹거리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떠오르면서 중국 업체에 밀렸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로봇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은 배터리 탑재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가 요구돼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지닌 삼원계(NCM) 배터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와 경량화,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작동해야 하는 로봇 특성상 상용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2~3배 이상 끌어올린 고에너지 기술이 요구되지만, 현존 기술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능이 가장 우수한 NCM 배터리를 적용하더라도 실사용 기준으로는 3~4시간마다 교체가 필요해 배터리 무게와

사용 시간이 로봇의 동작 안정성과 활용 범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상용화 시점과 원가 부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적용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같은 기술적 진입 장벽은 고에너지 밀도 기술에 강점을 지닌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NCM 계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로봇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겨냥한 기술 개발과 사업 연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6시리즈 등 신규 원통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미래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 중인 테슬라와 로봇 전용 배터리 사양을 두고 협의 중이며, 삼성SDI도 로봇용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며 지난해 현대차·기아와 전용 배터리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에너지 밀도와 출력, 사용 시간을 동시에 개선한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보스톤다이내믹스와 협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6를 계기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보스톤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등이 주목받으면서 로봇이 모빌리티·물류·제조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로봇 시장에 대한 중장기 성장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포춘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32억8000만달러(약 4조8500억원)에서 2032년 660억달러(약 97조6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머노이드가 산업과 서비스 영역에 본격 투입될 경우 구동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ESS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면서 로봇 확산 시점을 대비해 기술 축적에 나서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기아 EV 라인업.

기아, 전기차 대중화 총력전

구매·이용·교체 전 주기 혜택 강화
EV3·EV4 차량 0%대 초저금리 할부

기아가 국내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고객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나선 가운데 기아는 전기차 구매부터 이용, 교체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서 부담을 낮춰 전기차 접근성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아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부터 기존 보유 고객까지 전기자동차의 구매·이용·교체 전 주기에 걸쳐 체감 혜택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구매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EV3와 EV4를 대상으로 0%대 초저금리 할부와 잔가보장 유예형 할부를 운영해 초기 비용과 월 납입 부담을 낮췄다. 이를

통해 일부 차종은 월 10만원대 후반 수준으로도 전기차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가격 조정을 통한 상품 경쟁력도 강화했다. 기아는 이날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EV5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 진입 장벽을 낮췄고, EV5 롱레인지와 EV6 모델 가격도 조정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적용하면 일부 모델은 실구매가가 3000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는 올 상반기 중 출시를 앞둔 고성능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도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아는 EV 보유 단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강화도 병행한다. 기아는 전기차 전문 정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고전압 배터리 부분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 거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지선 같이 치르자”
▲국힘 우재준, 한덕수 중형에 “우리 당당…누구도 체포되지 않아” /사진 뉴시스

▲국힘,李 신년회견에 “무지하고 안이한 경제 인식” “전체주의적 경제관념”
▲사고 1년 지났는데 “추가확인”…여객기 참사 특위서 ‘사조위’ 질타

▲靑 “한국 국적 캄보디아 스캠조직 피의자 73명 강제 송환…전원 체포영장”
▲여야, 이해훈 청문회 23일 개최 합의…野 “추가 자료 제출도 부실, 날날이 검증”

석 달 만에 ‘1000p’ 꺾충… ‘코리아 프리미엄’ 기대감 고조

코스피 5000 시대

韓 증시 새 국면

코스피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1000’ 포인트를 뛰어 넘어 5000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그간 1000 단위씩 ‘점프’하는 데 6~18년이 걸렸지만 3000에서 4000에 이르는 데 4년 9개월이, 4000에서 5000 고지를 넘는데 석달이 채 안 걸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뒷받침되자 외국인 투자가 코스피로 몰렸다.

IMF 딛고 글로벌 주요시장 부상 지수 상승곡선 갈수록 가팔라져 대형주 쏠림현상 완화 등 과제

◆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한 ‘오천피’

22일 코스피는 장중 5019.54를 터치하며 지수 5000 시대를 열었다. 1980년 코스피 지수 100에서 1000을 찍는 데 9년 2개월, 2000은 18년 4개월, 3000은 13년 6개월이 걸렸다. 4000은 4년 9개월, 5000에 도달하는 데에는 3개월이면 충분했다.

코스피는 1000 단위씩 이정표에 이를 때마다 주된 동력이 계속 달라졌다. 1989년 3월 1000 고지를 뚫을 때는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 호황’을 등에 업고 수출 기업이 고성장을 거듭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상흔을 딛고 2000을 돌파한 2007년 7월에는 적립



Chat GPT로 생성한 ‘오천피시대’ 이미지

식 펀드의 인기가 주가를 이끌었다. 3000 고지에 이른 2021년 1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뿌린 유동성이 바탕이 됐다.

4000~5000 시대를 이끈 주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였다. 우선주를 포함한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이날 기준으로 1500조 원이 넘는다.

자동차도 큰 역할을 했다. 현대차와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일반 공개한 아틀라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현대차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 크다. 특히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시선을 끌었다. 글로벌 정보통신 전문매체이자 CES 공식 파트너인 C넷은 이번 CES 2026의 ‘베스트 로봇’으로 아틀라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방산, 조선, 원전 등 기술·산업주들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탰다. 한미 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종목이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코스피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정부는 증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부동산 규제를 통한 증시로의 ‘머니 무브’ 유도에 힘쓰고 있다.

각종 호재가 겹치자 외국인들도 움직였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코스피시장에서 4조187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오천피 핵심주역은 외국인”이라며 “글로벌 자금은 미국 시장 대비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에 높고, 전 세계에서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한 한국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지수는 외국인 수급과 궤를 같이해왔으며, 현재의 유동성 확장 국면을 주도하는 주체 역시 글로벌 투자자”라는 게 윤 센터장의 설명이다.

기관도 같은 기간 2조205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금융투자자들은 6조6054억 원 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8조9000억 원

어치를 팔며 시세차익을 누렸다.

◆ “반차 쏠림 벗어나야 지속 가능”

코스피 우상향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코스피가 5000시대를 열었지만, 다른 주요국 증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코스피의 주기순자산비율(PBR)이 1.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만은 물론 MSCI 신흥시장 벤치마크 지수보다 낮다.

반도체 중심 K-기업 저력 빛나 정부 증시 부양책 투자심리 자극 증권가, 당분간 우상향 지속 전망

1470원대의 원·달러 환율도 주식 상승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원·달러 환율은 상승) 외국인이 원화로 산 주식 가치도 떨어지기에 ‘코스피 탈출’ 행렬이 일어난다. 하지만 올해는 원화 가치는 추락하는데 코스피는 상승하는 ‘디커플링’이 뚜렷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1월 들어 뜨거운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해 매도우위를 보이는 반면 유틸리티, 상사지본재, 조선 등 주로 산업재에 대해서는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유 비중 자체가 이미 높은 업종들보다 경기에 민감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유율이 낮은 업종 중심으로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 기대도 증시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은 코스피 6000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세제, 자본시장 제도 개선

이 투자심리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동력으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꼽았다.

다만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2.2% 급증한 덕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력 산업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석유화학(-11.4%)·2차전지(-11.9%)·철강(-9.0%) 등 주요 15대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의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증시 쏠림이 이어지면 그만큼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수는 빠르게 올라왔지만 모든 기업의 체질이 함께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적과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업들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수 추가 상승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증시 랠리에 환호하는 대신 우리 경제의 쏠림을 완화하고,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게 만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정용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중복상장 방지법’ 등 추가 증시 활성화 논의

李 대통령, 코스피 5000 특위 오찬 오 위원장 “자본시장 체력강화 공감”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등 추가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5000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상법 개정을 추진해온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과) 현재 코스피 5000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개선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시점에 대해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입법 목표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후속 과제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복상장 방지법’ 등을 언급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오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상속 증여와 관련해 비상장 회사는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반면,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소영, 김영환 의원이 논의를 주도했고 법안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감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물적분할한 회사가 상장해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중복 상장 역시 엄격하게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관련 제도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전제가 L·G의 물적분할 사례로 시작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정무위에서 막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전문가들 “단기 급등 아닌 구조적 상승”

기업 이익 모멘텀·외국인 수급 맞물려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5000선 돌파를 단기 이벤트가 아닌 이익 모멘텀과 외국인 수급이 맞물린 구조적 상승국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6년 연초부터 코스피는 급등 랠리를 전개 중”이라며 “외국인 수급과 이익 모멘텀(동력)의 조합이 랠리의 근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수 상단에 대한 전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연간 단위로 5650포인트 상단을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 이익이 꺾이지 않는 한 (상승)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삼성전자 목표주가 18만원, SK하이닉스 96만원을 제시했다.

차기 주도주로는 “▲조선 ▲방산 ▲원전 ▲로봇 등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MASG A), 전쟁, 전력,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각종 재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연구원도 “추후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을 반영해 PER(주가수익비율) 12배 레벨 구간에 해당하는 5200선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이번 강세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지수 급등에도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밸류에이션은 약 10.2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평균레벨에 불과하다”며 “이익 모멘텀의 강도가 큰 만큼, 지수 상단을 추가로 열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천피’ 그 다음을 향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유종우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협 판결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리스크 해소가 변수”라고 짚었고,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환 시장 안정화 방안과 산업 구조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는 동시에 “국가 펀더멘털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상승 요인을 찾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용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증시 재평가 신호탄

주총 전 처리 목표로 입법 속도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 신설
기보유 자사주도 1년6개월 적용
발행주식 감소로 EPS 개선 기대
시장 “주주환원 강화” 긍정 평가
재계 “M&A 취득분 예외” 요구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 증권가 안팎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연쇄 개정에 대해 “정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스피 5000은 시작”이라며 3월 주주총회 시즌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3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여당은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건물에 ‘코스피 5000’ 경신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일정 기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대목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조항을 신설해 원칙적으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고,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수급 측면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건 ‘발행주식 수 감소’다. NH투자증권은

최근 10년간 코스피 상장기업의 합계 주식 수가 연평균 약 2%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연평균 10.5% 성장해,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이 순이익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유가증권 시장은 구조적으로 주식 수 증가가 EPS 성장을 제약해왔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코스피 상장기업의 주식 수가 연평균 1%가량 추가로 감소하면서 코스피가 재평가되는 흐름이 이어

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발행(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주주환원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고 있다. 미국의 애플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체 주식 수의 약 39%에 달하는 100억주 이상을 매입해 소각했다. 이 기간 애플의 주가는 약 10배 이상 상승했고, EPS는 연평균 15.7% 성장했다. LG 그룹도 주가 부양을 위해 올해 들어서만 ㈹LG 2500억원, LG유플러스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기업은 소각에 소극적이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의 조사를 보면 지난 시기총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상장사를 제외한 47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사주를 소각한 곳은 80개 기업이었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넘겨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해 왔

고, 이 때문에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서 “실제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곳이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있어 자사주가 과도하게 축적·남용되고 있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 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주주와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자본 시장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회사가 여윌돈으로 사들인 자기주식만 소각 대상에 포함하고,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자사주의 경우 ‘2년 내’ 소각과 처분이 모두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oul.co.kr

IMF·금융위기·코로나19 넘어… ‘오뎅이 저력’ 70년

대한증권거래소 1956년 출범
상장사 12곳서 2781곳 ‘초대형 시장’
작년 10월 ‘4000 시대’ 열고 새 기록

코스피가 사상 첫 ‘오천피’(코스피 5000)를 돌파하며 70년 역사를 새로 썼다.

22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02.88을 기록하며 꿈의 지수 ‘5000’을 넘어섰다. 1956년 증권거래소법 제정을 토대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한국 자본 시장이 걸어온 시간이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53년 11월 설립된 대한증권업협회가 주식시장

개설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증권거래소가 태동했다.

개장 당시 상장사는 12곳에 불과했지만, 1973년 최초로 100개를 넘어섰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 844개사와 코스닥 1824개사 등 2781개사로 늘어났다. 시가총액도 개장 첫째 150억원에서 4660조원까지 불어났다. 지난 1월 16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4000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점은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제정이다. 개장 첫째 주식 거래대금은 현재 가치로 환

산해 약 3억9000만원이었고, 1961년 4억원에 그쳤던 주식 거래대금은 이듬해 1000억원 수준까지 급증했다.

첫 위기는 1962년으로 5월 ‘증권 파동’ 때 찾아왔다. 당시 시장 팽창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인해 거래소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 특별법과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을 잇따라 마련했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기업들의 상장 러시가 이뤄졌다.

코스피는 5000선에 달기까지 우여곡절을 반복했다.

코스피 지수가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은 1983년 1월 4일이다. 지수는 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을 기준(100)으로 삼아 산출됐으며, 첫 발표 당시 수치는 122.52였다. 이후 1989년 3월 31일 1000선을 처음 돌파했고, 1997년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1998년 6월 16일 코스피는 277.37까지 급락했다. 정보기술(IT) 투자 열풍을 발판 삼아 1999년 다시 1000선을 회복했지만, IT 버블 붕괴와 건설 경기 과열 후유증, 9·11 테러가 겹치며 지수는 다시 400선까지 후퇴했다. 2007년에 다시 2000선을 넘어섰

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1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2017년 들어서는 세계 반도체 경기 호황에 2500선을 넘어섰으나 다시 하락세를 맞이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1500선까지 추락했고, 개인 매수세가 유입된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급반등해 2021년 1월 ‘삼천피’에 도달했다.

이후 2024년 말 비상계입 여파 등으로 2399.49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며 지난해 6월 3000선을 회복했다.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사상 첫 ‘4000 시대’에 진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75.9% 오른 코스피는 새해 들어서도 상승 동력을 유지하며 이날 장중 5000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신하은 기자

“韓, AI 수혜 시장으로 전환… 상승여력 충분”

AI 설비투자 급증, 메모리 수요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모멘텀 지속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고지를 넘자 외신들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정부의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 개선 노력이 이번 성과를 끌어냈다는 평을 내놴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서 이번 펄리는 한국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출 주도 시장에서 글로벌 AI 붐의 핵심 수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 증시를 놀랐던 코



Chat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수혜감에 상승하는 한국 증시’ 관련 이미지.

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의 고질적 저평가) 문제가 계속 해결되며 상승 동력(모멘텀)이 더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것

이다.

또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등 AI 설비 투자가 급증하며 한국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낙관적 전망의 근거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많은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칩의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의 자본 시장 선진화 조치가 오천피 달성에 힘이 됐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주주권익을 강화하고 불투명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7월과 9월 두차례 상법 개정을 단행했고 현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원·달러 1469.9원 마감… 이틀째 하락세

李 대통령 ‘1400원’ 언급 후 하락 지속

이재명 대통령의 ‘1400원’ 발언 이후 큰 폭으로 올랐던 원화값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국내 경제 상황 대비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나오는 가운데 적극적인 개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사가 시장에 반영된 영향이다.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69.9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다. 직전일 종가보다 1.4원(0.95%) 내린 수준으로, 이를 연속 하락(원화가치 상승)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주춤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개입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

사회견에서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언급했다. 직전일 달러당 1478.1원이었던 환율은 21일 오후에는 1471.3원까지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환율)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원화는 엔화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9월 30일 이후 4달 연속으로 1400원을 상회하고 있다. 달러화가 불확실성 확대, 연준 독립성 우려 등을 이유로 주요 통화 대비 약세에 있지만, 원화와 동조율이 높은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원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구조혁신 계획안 동참” vs “MBK 기획청산 즉각 중단하라”

〈일반노조 포함 직원 87%〉

〈마트노조〉

홈플러스 희생안 ‘내홍’

익스프레스 분할매각, 점포 폐점으로 3000억 규모 긴급 운영자금 요청 일반노조 등 직원 87%, 조건부 동의 마트노조 “알짜 사업부 헐값 매각 MBK의 안전한 투자금 회수 절차”

기업 회생 절차 10개월 차에 접어든 홈플러스가 임금 체불, 협력업체 공급 중단, 세금 체납까지 겹치며 벼랑 끝에 섰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사측과 노조가 모여 좌담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검토했지만 회생 방안을 두고 노조간 심각한 갈등이 노출됐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 21일 예정됐던 직원 월급을 체불했다. 지난달도 월급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한편 전국 수십여 점포가 세금을 체납하며 압류 절차를 밟는 등 재정난에 빠진 상황이다. 납품대금 지급이 막히며 식품사들로부터 물품 공급 중단도 이어지고 있다. 납품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긴급좌담회’에서 MBK 회생계획안 성실 이행을 약속하며 회생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물량은 지난해 대비 45% 수준이다.

생존을 위협받자 일반노조와 한마음 협의회를 포함한 직원 중 87%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표했다. 지난달 29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과 40여개 적자 점포 폐점 등을 골자로 한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3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을 요청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을 내는 한편 채권단인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마트노조는 회생계획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이번 회생계획안이 홈플러스의 자생력을 파괴하는 기획된 청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계획안의 핵심인 자산 매각이 실행

될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마트노조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알짜 사업부인 익스프레스와 흑자 매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면, 남은 것은 경쟁력을 상실한 80여 개 ‘깍뎀기 점포’뿐”이라며 “이 상태의 회사를 인수할 곳은 없다. 결국 이는 회생이 아니라 MBK의 안전한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하루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홈플러스 좌담회에선 마트노조와 일반노조 간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일반노조 위원장이 “고용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일반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구조혁신 계획안에 동참하겠다”고 밝히자 몇몇 마트노조 노조원은 아우하거나 이 위원장을 향해 어용이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업계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을 홈플러스 생존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사측과 한마음협의회는 “전체 직원의 87%가 동의한 구조혁신안만이 유일

한 살길”이라며 “노조의 반대로 긴급 운영자금(DIP) 3000억원 투입이 지연되면 협력사 연쇄 도산 등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금 이 적기에 수혈될 경우 3년 내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흑자 전환을 통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마트노조는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은 대출 요청조차 받은 적 없다”고 확인한 점을 들어, 사측의 자금난 호소가 MBK의 먹튀를 가리기 위한 거짓 명분이라고 비난했다. 마트노조 측은 “알짜 사업부만 팔아치우려는 기획 청산을 즉각 중단하고, 캡코나 유암코 등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전환해야 고용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만명의 고용이 걸린 회생계획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협력사 이탈과 점포 압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AI 사업자, ‘AI 제작물’ 의무 표시해야… 이용자는 규제대상 제외

〈AI 제품·서비스 직접 제공〉

韓 세계 최초 ‘AI 기본법’ 전면 시행 서비스 내에서만 제공 땀 표시 유연화 다운로드·공유 시 명확히 인식 돼야

대한민국이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AI 제작물’임을 알리는 이른바 ‘AI 꼬리표’ 부착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막고 기술 활용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하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용 대상과 표시 방식까지 구체화하며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정부가 마련한 하위 가이드라인은 ‘누가, 언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서



AI 기본법 시행 첫날인 22일 서울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출입구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이 걸려있다. /뉴시스

비스 유형별로 세분화하며 산업 현장에서 제기돼온 혼선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표시 책임을 개인 창작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귀속시킨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법안과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주

목해야 할 점은 규제의 주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이용자에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단순한 업무 도구나 창작

〈유튜버·웹툰작가 등〉

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별 유튜버나 웹툰 작가 등 ‘이용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표시 방식은 생성물이 소비되는 환경에 따라 ‘서비스 내부’와 ‘외부 반출’로 엄격히 구분된다. 챗봇이나 게임처럼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결과물이 제공될 경우, 초기 화면 안내나 로고 표출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활용해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이 다운로드되거나 공유되어 외부로 나갈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때는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가청적 워터마크를 적용하거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메타데이터 등의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빚었던 ‘AI 편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

다. 단순히 영상의 길이를 자르거나 구간을 재배치하는 ‘트리밍’ 등 생성형 AI의 본질적 기능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 편집은 표시 의무가 없다.

그러나 AI가 없는 장면을 새로 만들어 넣거나 인물의 표정과 입 모양을 보정하는 등 맥락을 재구성하는 순간 이는 ‘생성’으로 간주되어 표시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생성물인 ‘딥페이크’의 경우, 장소와 관계없이 사람이 즉각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일반 생성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허용하지만, 딥페이크만큼은 예외 없는 시각적 고지를 강제한 것이다. 이는 선거 조작이나 범죄 악용 등 AI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서현 기자 seoh@

지난해 덤핑조사 ‘역대최대’… 공급과잉·저성장 장기화 영향

무역위, 13건 접수·8건 조치 시행 철강·화학 다수… 中 제품 9건 차지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속에 저가 수입재 유입이 늘면서, 지난해 국내 덤핑조사 신청과 정부 조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덤핑조사 품목은 철강·화학제품이 다수를 차지했고, 국가별로는 중국 제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에서 무역조사실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덤핑조사 신청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1987년 무역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덤핑 신청이 본

격적으로 늘기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무역위는 글로벌 철강·화학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가 저가 범용재 중심의 불공정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OECD 기준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 능력은 2021년 4억 5000만톤에서 2024년 5억 7000만톤으로 27% 늘었고, 화학 산업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개편 중인 가운데, 중국·중동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덤핑조사 신청 품목은 철강·화학제품이 13건 중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EU(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다.

무역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도 신청 사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덤핑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나 가격억속 체결 등 조치를 새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인 품목은 15개국 28개로 확대됐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베트남이 각 4건, 대만·인도네시아가 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도 크게 확대됐다. 덤핑 조사 대상 국내 시장의 평균 규모는 2025년 1조 8000억원 수준으로, 2021년 1503억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0.3% 줄었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0% 건설·설비투자 수출 감소 영향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3% 줄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소비는 늘었지만 건설·설비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 내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0%였다. 한은 전망치와 동일한 것으로 직전년(2.0%)의 절반 수준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계절조정) 0.3%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원계열)로는 1.5% 증가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

차 등 재화가 줄었지만 의료 등 서비스가 늘어 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반면 투자와 대외부문이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이 모두 줄어 3.9%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8% 줄었다.

수출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감소해 2.1% 줄었다. 수입도 천연가스,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7% 감소했다.

생산측면에서도 건설업(-5.0%)과 제조업(-1.5%)이 줄었다. 전기·가스·수도사업도 전기업 감소 등으로 9.2% 축소됐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등이 늘어 0.6%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AI 시대 전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조국혁신당에 손 건넨 민주당… 조국 “국민 뜻 따라 논의”

“추구하는 시대정신 다르지 않아”
청와대 “논의 잘 이뤄졌으면”
민주당 내부서는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밝혔다. 이어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을 하고 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북 전주시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합당 제안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정 대표 회견 이후 전북 전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마음,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

며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21일) 조 대표와 만나 합당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해 왔고, 어제 오후 (합당)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게 됐다”며 “현재는 제안만 한 상태라,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다. 논의는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당·정·청 간 합의, 조율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지만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당부 관련된 일 아니겠나”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은 몰라도 공유 과정은 거쳤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도 이날 오후 열린 정책 의원 총회에서 “당청이 조율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에게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평소에 정당 간의 양당 통합에 대한 지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하니까 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을 둘러싸고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 속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합당 반대 측은 정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전격 제안한 점을 비판했고, 찬성 측은 “더 강한 진보로 나아가야 한다”, “목표가 같으면 함께 걸어야 한다” 등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도 찬성·반대 취지로 발언한 의원은 각 입장별로 2명, 총 4명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oul.co.kr

박근혜가 설득하자 장동혁 단식 멈췄다

박 전 대통령, 10년 만에 국회 찾아
장 대표 “더 길고 큰 싸움 위해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10년 만에 국회를 찾아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단식을 멈춰달라고 설득했다.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며 단식을 멈추고 건강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훗날에 더 강한 투쟁을 위해 건강부터 챙기라고 조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지난 2016년 10월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후 처음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단식투쟁단 의료지원단장도 박 전 대통령의

단식농성장 방문을 20여분 전에 공지받았을만큼 ‘깜짝 방문’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중도·보수 인사들이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와 마주 앉아 단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8일째 단식을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많은 걱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해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

신 통일교 관련 특검과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조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한 목숨을 건 투쟁을 두고 국민들께선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훗날을 위해서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장 대표는 이후 단식농성장에서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장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였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 ‘보완수사권’ 두고 내부 격론

정책의총 열고 검찰개혁법안 토의
필요성 공감하지만 다른 방식 의견
협의 통해 하나의 법안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의 쟁점을 논의한 가운데,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회 당시 밝혔던 것처럼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말씀하셨

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이 라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서 충실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여당이기에 무한정 저희 의견만 병렬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는 없고 종국적으로는 당정협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사에 부여했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과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구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회에서 “나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의)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박태홍 기자

여야, 이해훈 청문회 오늘 개최 합의

野, 날선 검증 예고

여야가 23일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후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는 2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해훈 청문회, 내일(23일) 한다. 추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도 매우 부실하다. 제출시한인 어제 밤을 넘겨 오늘 아침에야 인쇄본이 도착했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부실을 낱알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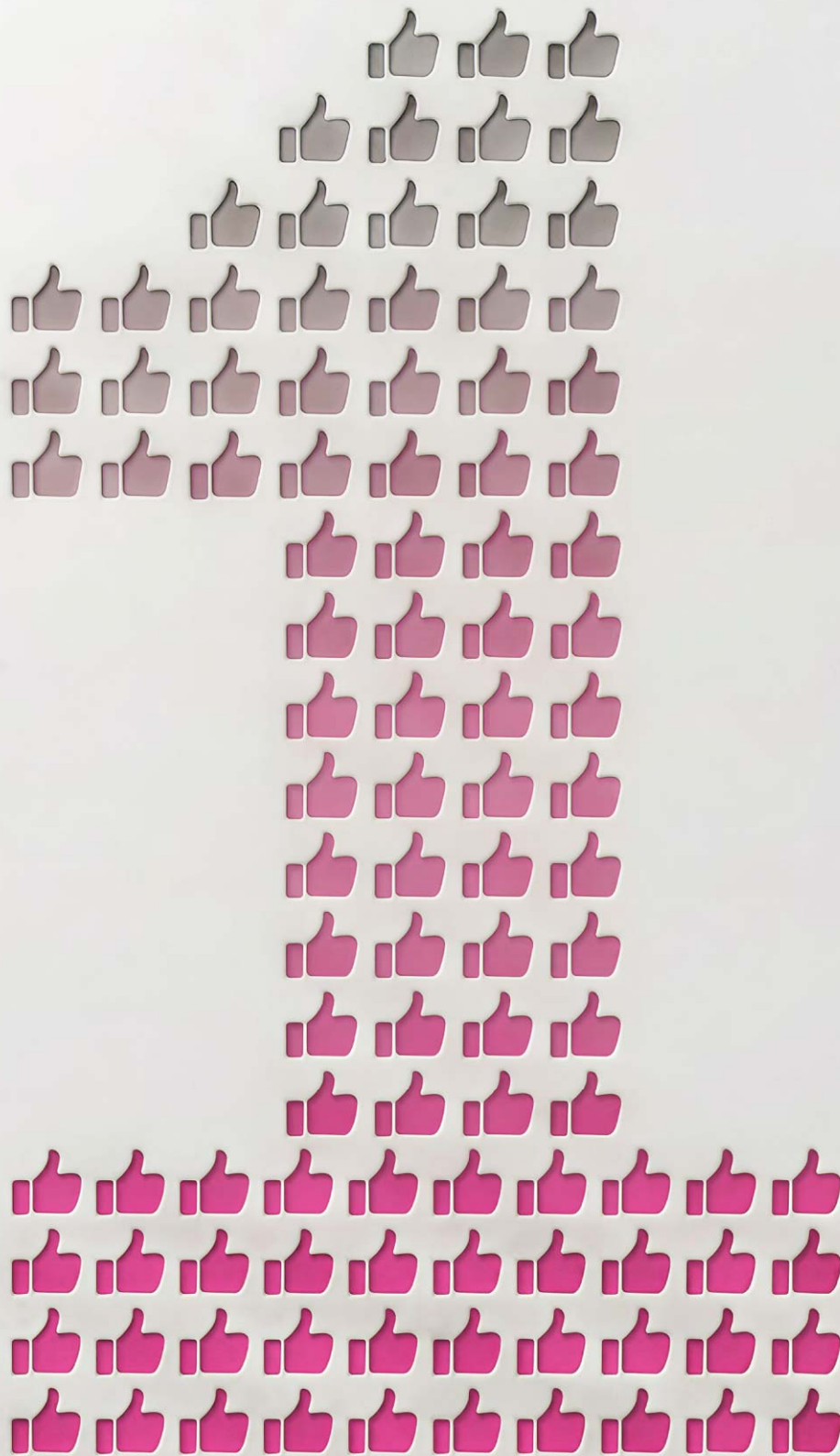
박 간사는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90억원대로 아파트 부정청약 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날선 검증

을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무엇을 (이후보자가) 잘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엔 (임명에)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의 역량을 평가할뿐 아니라 1일 1비리가 계속 나왔던 것에 대해 소상히 밝혀서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9일 예정됐었으나, 야당이 이 후보자의 넘쳐나는 의혹에도 국회로 제출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도 들어오지 못한 채 회의장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나흘이 지나서야 청문회가 정식으로 열리게 됐다.

/박태홍 기자



고객님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믿음에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KNPS) 1위

★★★★★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
(KCSI) 1위

★★★★★
국가고객만족도
(NCST) 공동 1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만족도 1위

“불완전 판매와 철저 결별… AX도입, 일하는 방식 전환해야”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교보생명

완전보장·소비자 보호 최우선 과제
올해 ‘신뢰의 품질’ 끌어 올리는 해
고객경험 개선·업무 효율화 등
AX 목표 ‘체감 성과’ 만드는 것

교보생명은 2026년 최우선 경영과제로 ‘고객 완전보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 관행을 끊고, 전속채널 경쟁력과 인공지능(AI) 전환(AX)을 동시에 강화해 보험의 본질인 ‘보장’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 ‘완전보장’이 제1 과제

교보생명이 정의한 ‘고객 완전보장’은 가입 확대보다 보험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신창재 의장은 2026년 출

발 조회사에서 보험의 ‘완전 가입’부터 ‘완전 유지’, ‘정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야말로 생명보험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창재 의장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불완전 판매와 승환 계약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와는 철저히 결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제시했다. 영업 확대보다 ‘민원·분쟁’이 생기지 않는 판매와 ‘정당한 지급’이란 신뢰의 기준을 먼저 세우겠다는 의미다.

교보생명은 시장 환경을 ‘만만치 않은 출발선’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성장세 둔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 불건전 영업 관행이 신뢰를 흔드는 리스크로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회사는 2026년



교보생명 사옥 과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교보생명

을 ‘신뢰의 품질’을 먼저 끌어 올리는 해로 규정하고, 고객가치 중심의 영업·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전속채널 강화·AX 추진

교보생명은 ‘완전보장’의 실행 축으로 전속 대면 채널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꺼냈다. 우수 재무설계사(FP)를 중심으로 전속채널을 확장하고, AX를 통해 고객 접점과 업무 프로세스를 바꿔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창재 의장은 “AX가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이란 점을 강조하며 추진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X의 목표를 고객경험 개선과 업무 효율화, 비용 구조 개선까지 포괄하는 전사 과제로 설정해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무 지표도 내실 기조를 뒷받침한다. 교보생명의 2025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88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4215억원으로 줄었지만, 투자

손익은 6706억원으로 늘었다. 자산부채 관리(ALM) 원칙 아래 장기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금리 변동성 축소에 집중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핵심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도 보장성 중심으로 확대 흐름을 보였다. 교보생명의 3분기 신계약 CSM은 398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늘었고, 3분기 말 누적 CSM 잔액은 6조3885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장성 판매 확대와 보유계약 효율 관리가 동시에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의 2026년 과제는 이 같은 ‘보장성 중심 체력’을 전속채널 경쟁력과 AX로 연결하고 판매·유지·지급 전 과정에서 소비자 체감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신 의장은 “고객 완전보장을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불건전 영업 관행과의 결별을 재차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달러당 160엔 ‘초엔저’ 지속… 덩달아 원화도 ‘약세’

日 다카이치 총리 재정확대 영향
“당분간 사나에노믹스 지속 전망
엔화 추가 약세는 제한적 일 것”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 상승했던 엔화값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적인 재정확장과 완화 정책으로 엔화값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은 지난 2024년 7월 이후 최고(엔화값 최저) 수준을 지속 중이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구조가 유사해 원화와 엔화의 동조성이 큰 만큼 ‘역대급 엔저’가 재현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투자정보사이트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뉴욕 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달러당 158.27엔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말의 156.67엔과 비교해 1.02% 올랐고, 최근 1년의 최저치인 139.88엔과 비교해서는 18.9엔(13.1%) 올랐다. 엔화값이 달러당 160엔을 목전에 둔 가운데, 엔화 가치는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4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한화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취급하고 있다. /뉴스

원화 대비 엔화값도 내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엔 환율 주간 종가는 100엔당 930.32원이다. 2024년 초엔저 당시 80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작년 4월 1000원을 넘겼는데, 엔화값이 다시 내리면서 90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최근 엔화값이 하락한 것은 작년 10월 임기를 시작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및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다카이치는 취임 직후 육아 지원금

지급,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재개, 지자체 교부금 확충 등 대규모 완화책을 추진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당시의 재정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빚댄 ‘사나에노믹스’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다카이치는 대규모 완화책을 추진한 데 이어, 취임 이듬해인 2026년도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22조 3000억엔으로 편성해 정부 지출도 대폭 늘렸다.

‘사나에노믹스’에 대한 논란 속에 다카이치는 지난 19일 총리 전권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오는 2월 8일 총선을 치

르겠다고 선언했다. 70% 안팎의 높은 총리 지지율에도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국회 과반을 간신히 확보한 만큼 조기 총선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2월 총선에서 자민당과 유신회가 충분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사나에노믹스’도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엔화값 하락이 원화값 하락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경합도가 높고 산업구조가 유사해 양국 통화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기축통화인 엔화값이 하락하면서 비기축통화인 원화값이 이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사나에노믹스’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엔화의 추가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부담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아베 정권처럼 마냥 엔 약세를 용인하기 어렵고 미·일 기준금리차도 축소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왼쪽부터) 이병서 한화생명 투자부문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멀타자 악바르(Murtaza Akbar) LCV 매니징 파트너, 에밀 우즈(Emil Woods) LCV 공동창업자가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한화 금융계열 4곳 2026 세계경제포럼 참여 디지털금융 기업과 MOU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한화자산운용 등 한화 금융계열은 ‘2026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들과 미래 금융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화금융은 앞서 아부다비금융주간(ADFW)에서 제시한 ‘전통 금융의 신뢰’와 ‘디지털 금융의 개방성’을 결합한 전략을 이변 다보스 무대에서 확장·구체화하는 흐름으로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주요 계열사별 협력도 공개됐다. 한화생명은 지난 21일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미국 뉴욕 기반 Web3·핀테크 벤처캐피탈인 리버티시티벤처스(LCV)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핀테크 혁신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병서 한화생명 투자부문장은 “디지털 금융 분야와 전통 금융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추진해온 LCV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투자·생활비 수요… 은행 신용대출 감소폭 급감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105조
전월대비 감소액 42억 그쳐

은행의 신용대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코스피가 4800선을 넘어서며 투자목적의 대출이 늘고, 체감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20일 기준 767조 331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과 비

교하면 3464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가계대출 감소폭은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주택담보대출은 611조4278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80조256억원 감소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던 주담대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감소폭이 줄었다. 지난 2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9643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42억 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한달 전만해도 5960억원이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신용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전달 기준 코스피지수는 1885.75로 장을 마쳤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차주들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투자자금을 보완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자금 조달이 막힌 가운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신용대출이 대체 수단으로 선택되면서,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만 신용대출 증가세를 빗투(빚내서 투자)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2월 기준 117.57로 1년전과 비교해 2.3% 상승했다. 소비자가 일상에서 자주 구매하고 가격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20.60으로 2.8% 올랐다. 고금리와 물가 부담이 장기화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기존 소득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이 투자목적보다는 의료비·교육비·주거비 등 필수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생활자금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나유리 기자 yul115@

철강업계, 철근 감산·설비 축소 ‘자율 구조조정’ 국면 본격 진입

중국발 저가물량 등 시황 악세
일부 제강사, 설비폐쇄 등 추진
“업계 내 조정 필요성 지속 거론”

국내 철강업계가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의 이중 압박 속에 철근의 감산과 설비 축소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의 인천공장 설비 폐쇄 추진과 함께 동국제강, 중소형 제강사들까지 가동 조정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20일 인천공장 노사협의회에서 90톤급 전기로 제강 설비와 연계 소형 압연 설비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리되는 소형 압연 라인의 연간 철근 생산능력은 약 80만톤으로, 인천공장 철근 생산능력은 기존 약 160만톤에서 70만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의 인천·당진·포항 합산 철근 생산능력도 연 330만톤 안팎에서 250만톤 수준으로 줄어 약 25% 축소되는 셈이다.

포항 생산기지에서도 가동 조정과 사업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 포항 2공장

(봉형강)은 가동 중단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봉형강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 서 단기간 내 재가동 계획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포항 1공장 내 형강(H형강 등)을 담당하던 중기사업부는 매각 절차를 진행 중으로, 봉형강 사업은 감산을 넘어 휴동이 길어지고 품목 조정과 사업 정리까지 겹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제강사들도 시황 악화에 맞춰 감산에 나서고 있다. 동국제강은 인천공장을 탄력 운영하며 지난해 7~8월 약 한 달 휴동한 데 이어 12월에도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현재는 생산을 재개했지만 가동률을 50%대로 낮춰 야간 조업 중심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장은 전기로 2기·압연라인 2기를 갖춘 철근 거점으로, 연간 생산능력은 약 220만톤이다. 대한제강·와이케이 스틸·한국철강 등 중소형 제강사들도 생산·가동 일정을 조정하며 출하 속도와 재고 부담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수급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철근 명목소비는 약 658만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약 729만톤) 대비 약 10% 감소한 수준

이다. 반면 국내 철근 압연 설비능력은 연간 1300만톤 안팎으로, 최근 소비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에 중국발 저가 물량 확대도 시황 악세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중국의 철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2% 증가한 1225만톤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내 건설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확대가 아시아 철강 시장 전반의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신호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철근을 설비 규모 조정 중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와 K-스틸법을 통한 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자율 조정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 설비의 경우 정부 제도 지원이 나오기 전부터 조정 필요성이 업계 안에서 거론돼 왔다”며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과잉 영향이 겹치면서 재작년부터 생산량 조절과 비가동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조현상 부회장, 북미·인도 투자 ‘물꼬’ (HS 효성)

2026 다보스포럼

산업 리더·정부 관계자들 교류
화학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논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6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산업 리더 및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화학 산업의 중장기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행보를 펼쳤다.

22일 HS효성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섹션으로, 세계 주요 화학기업 최고경영진들이 모여 글로벌 화학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화학 거버넌스 미팅’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다보스 화학 거버넌스미팅에 공식 초청받은 기업은 세계적인 화학 기업인 독일 BASF, 미국 Dow, 사우디아라비아 SABIC, HS효성 등 글로벌 주요 화학 기업 10여개사다. 조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화학 기업 CEO들과 만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동 및 중국의 설비 증설이 가져올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HS효성의 친환경 소재와 저탄소 전환(Net-Zero)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부회장은 이번 일정 중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북미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과 한국기업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샴페인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조 부회장은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양국 간 협력과 캐나다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



(왼쪽부터)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인도 마하리슈트라 주총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인도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HS효성

해 감사를 전하고, 한국과 한국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조 부회장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인도 마하리슈트라 주총리를 만나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글로벌 소재 강자인 HS효성이 해당 지역 투자를 통해 인도 내수와 수출의 기회를 잡고, 고용 창출은 물론 인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부회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각국 기업 및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친환경·저탄소 전환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그동안 다보스 포럼에 꾸준히 참석하며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됐고, 주요 20개국(G20)의 ‘젊은 글로벌 리더’ 조직인 ‘YGL G20 이니셔티브’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다양한 국제 경제 협력 무대에서 민간 경제 외교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현안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필랑트’ 양산

르노코리아는 지난 21일 부산공장에서 글로벌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르노 필랑트’의 양산을 시작하며 1호차 생산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한화, 개인주주 만났다… 인적분할 비전 공유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 제시
배당확대 검토 등 주주환원 의지 표명

㈜한화가 개인주주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사주 445만주 전량 소각과 주당 배당금 1000원 설정은 물론 추가적 배당 확대 등 구체적 주주환원 정책을 공언했다.

㈜한화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인 주주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적분할 결정 이후 일반 주주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적분할의 핵심 목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한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가 제시됐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각 사업군별 전략과 투자 효율화를 통해 시장의 재평가를 유

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한화 한상윤 IR담당 전무는 “복합기업 구조로 인해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만큼, 이번 분할을 통해 자회사 기업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주)한화는 임직원 성과보상분을 제외한 자사주 445만주 전량 소각과 보통주 기준 최소 주당 배당금(DPS) 1000원(보통주 기준) 설정 등 인적분할 발표 당시 제시한 주주환원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자회사 성장 상황과 재무 여건을 고려해 추가적인 배당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도 인적분할과 주주환원정책을 둘러싼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인적분할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

이고 지주회사할인 요인을 축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증권가에서 나왔다.

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개인 주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한 주주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 제고 계획을 높이 평가하며 추가적인 주주환원정책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한화는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향후 검토가 이뤄질 경우 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앞서(주)한화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이 속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이 포함된 신설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안을 결의했다. 같은 날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인적분할의 취지와 중장기 전략을 설명한 바 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美 대학 ‘런드리 라운지’ 오픈

세탁기·건조기 등 체험공간 조성

LG전자가 미국 대학 캠퍼스에 세탁 체험 공간을 조성하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테네시주립대학교 기숙사에 ‘LG 런드리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LG 런드리 라운지’에는 상업용 세탁기 16대와 건조기 24대를 비롯해 LG 올레드 TV, 모니터,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됐다. 학생들은 세탁을 기다리는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콘텐츠를 감상하는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체험 공간은 테네시주립대학교 내 최대 규모 기숙사인 ‘프레드 D. 브라운 홀’에 마련됐다. 해당 기숙사에는 약 700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테네시주립대학교는 LG전자의 미국 생산 거점이 위치한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이다. LG전자는 이번 공간 조성을 위해 대학에 제품과 설비를 기부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약 4만 명의 재학생과 연간 6만여 명의 방문객이 오가는 캠퍼스를 통해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LG 런드리 라운지’에 설치된 상업용 세탁기에는 인버터 다이렉트 드라이브



美 테네시주립대 기숙사에 마련된 ‘LG 런드리 라운지’ /LG전자

(DD) 모터 등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이 적용됐다. 세탁통과 직접 연결된 인버터 DD 모터는 진동과 소음을 줄이고,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은 높여 다수의 사용자가 장시간 이용해도 안정적인 구동된다.

LG전자는 상업용 세탁기 전용 애플리케이션 ‘런드리 크루’를 제공해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학생들은 기숙사 방이나 강의실에서도 세탁기·건조기 사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탁 완료 알림을 통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광도영 부사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LG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피해신고·회복까지 지원…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출범

중기부, 관계부처 대응체계 구축
사건 발생 시 공조·역할분담 논의
‘기술보호 신문고’ 등 도입 검토
전문인력 공동 활용 과제 발굴
“中企 기술보호 생태계 강화”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돕기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 꾸려졌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범부처 대응단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모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지만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 출범했다.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

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

입·운영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 입법되는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대책에도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두루 담겼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실효성 있는 피

해구제를 위해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업경찰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더욱 늘릴 방침이다.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하고 불법행위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익명제보도 더욱 활성화한다.

특히 현재 시정권고만 기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몰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개정한다. 기술탈취가 많은 기계, 차부품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웅진프리드라이프, 프리미엄 웨딩홀 사업 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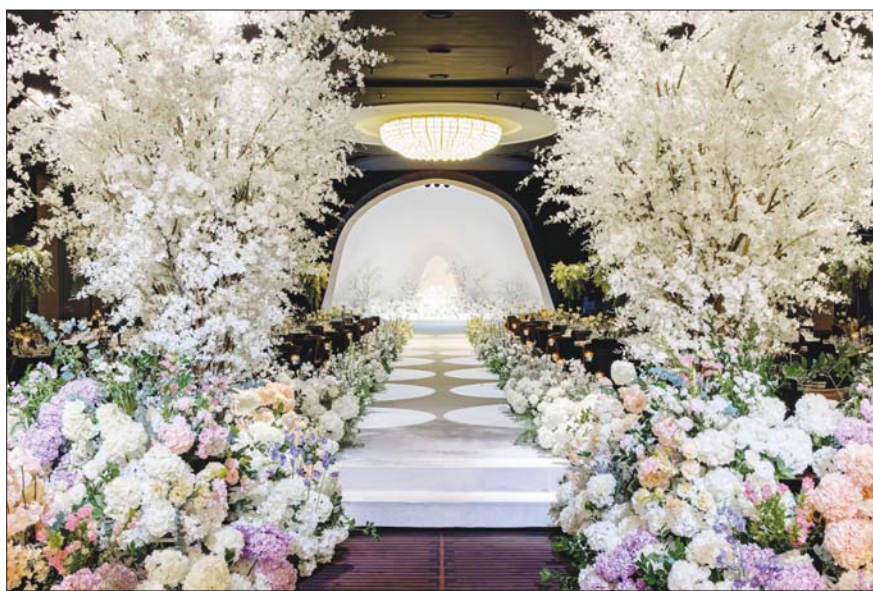
PEF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가시화
강남·성수·신도림 핵심 거점 확대
젊은고객 접점 넓혀 토탈 케어 강화

상조회사인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웨딩홀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프리미엄 웨딩 사업을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고객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와 함께 프리미엄 웨딩·케이터링 전문기업 티앤더블유코리아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웨딩 사업에 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랜드힐컨벤션(강남), 보테가마지오(성수), 웨딩시티(신도림) 등 서울 핵심 상권에 위치한 프리미엄 웨딩홀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웨딩홀 ‘그랜드힐컨벤션’ 전경.

해당 웨딩홀들은 연간 약 2000건의 예식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급화된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서비스, 우수한 F&B 운영 역량을 강점으로 한다. 웅진프리드라이

프는 이러한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성과와 시장 수요를 고려해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웨딩홀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웨딩 사업은 예식 수요가 비교적 구

준하고, 공간 운영·연출·식음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구조를 갖춘 분야로 평가받는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프리미엄 웨딩 사업을 통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예식 공간 운영을 넘어, 향후 새로운 형태의 프리미엄 웨딩홀 브랜드를 선보여 웨딩사업을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웨딩 사업 진출은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라이프케어 플랫폼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결혼을 계기로 젊은 고객과의 접점을 형성한 뒤 여행, 가족 행사, 교육, 시니어 케어 등으로 서비스 경험을 확장하며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회사는 이를 통해 고객 생애주기 전반을 연결하는 라이프케어 구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혁신벤처업계

“벤처 4대 강국 도약”

여성벤처協 등 5개단체 신년인사회

혁신벤처업계가 신년인사회를 열고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다짐을 더욱 공고히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6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벤처기업인,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대한민국 벤처의 성과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벤처금융 확장과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한 벤처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에서 실행력을 높이고 투자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AI 입은 전기 SUV’… 볼보, ‘EX60’ 세계 첫 공개

1회 충전 810km…10분 충전 340km
차세대 SPA3·휴긴코어 기술력 집약
셀투바디·메가캐스팅 등 효율 극대화

볼보자동차가 브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기 SUV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신형 EX60을 공개했다.

볼보자동차는 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순수 전기 SUV ‘볼보 EX60’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EX60은 5인승 패밀리카 SUV로 중형 SUV 부문에선 브랜드 첫 순수 전기차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 CEO는 “EX60은 주행거리, 충전 속도, 가격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이며 볼보와 고객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메가 캐스팅, 셀-투-바디, 코어 컴퓨팅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핵심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아키텍처가 볼보의 기술 역량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EX60은 사륜구동(AWD)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810km(WLTP 기준)의 주행 거리를 제공한다. 볼보자동차가 지금까지 선보인 전기차 중 가장 긴 거리다. 400kW 급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분 충전으로 최대 340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파워트레인에는 ▲최대 810km의 동급 최고 수준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하는 P12 AWD 일렉트릭을 비롯해 ▲P10 AWD 일렉트릭(최대 660km), ▲후륜구동 방식의 P6 일렉트릭(최대 620km)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모두 10년 배터리 보증을 제공한다.

EX60은 차세대 전기차 아키텍처 SPA3를 기반으로 하며, 볼보자동차의 새

로운 핵심 시스템 ‘휴긴코어’로 구동된다. 여기에는 ▲셀-투-바디 기술 ▲차세대 자체 개발 전기 모터 ▲새로운 배터리 셀 설계 ▲메가 캐스팅 기술 등에너지 효율과 주행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EX60은 볼보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가운데 가장 낮은 탄소 발자국을 달성했다. EX60은 공기저항계수 0.26을 달성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의 공기저항계수(0.288)보다 낮은 수치다.

EX60은 휴긴코어 등 자체 기술 역량과 더불어 구글,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들과의 협업이 반영됐다. 특히 볼보자동차 최초로 구글의 AI 어시스턴트 ‘제미나이’를 탑재해 특정 명령어를 기억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볼보 EX60.

개인화된 대화가 가능하다.

EX60은 정확하고 명확한 상황 인식을 위해 휴긴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차량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추후 OTA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확장된 안전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귀뚜라미

한파 대비 보일러 관리 “배관 보온재 점검·교체”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보일러 동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귀뚜라미가 내놓은 ‘혹한기 보일러 관리 및 난방 전략’에 따르면 겨울철 보일러 동결 사고는 대부분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발생한다. 보일러와 연결된 직수·난방·온수·응축수 배관은 보온재로 꼼꼼히 감싸 외부 냉기를 차단해야 하며, 보온재가 훼손됐거나 오래된 경우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뚜라미보일러에는 난방수 온도가 8℃ 이하로 떨어지면 순환펌프를 가동하고, 5℃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2단계 동결 방지 기능’이 적용돼 있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SKT 영업익 40% ↓ KT 부동산 착시효과 LG U+ 반사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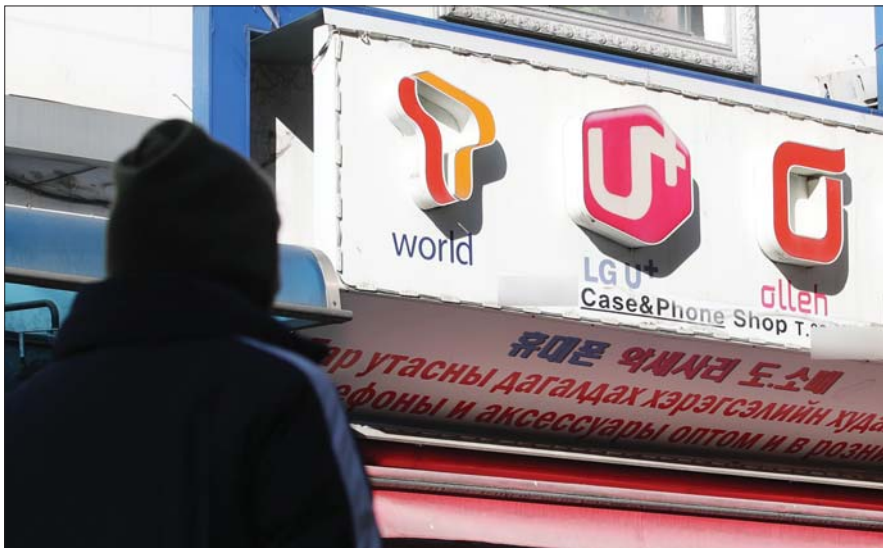
통신3사 합산 영업익 4조

대형 사고 수습 영향 각 사 온도차
작년 4분기 기점으로 악재 털어내
AI 전략이 실적의 핵심 변수될 듯

이동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다시 4조원을 넘어섰다. 표면적으로는 실적 회복 국면에 들어선 듯 보이지만, 4조원대 성과를 떠받친 동력은 각 사마다 달랐다. 대형 사고 수습 비용,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일회성 이익, 경쟁사 악재에 따른 반사효과가 맞물리며 통신 3사의 실적은 같은 숫자 아래서도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2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5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9% 늘어난 규모로 2023년 이후 다시 4조 원대 복귀다.

다만 각 사별로 실적 명암은 갈렸다. SKT가 1조 원대를 가까스로 방어한 것과 달리 KT는 2조 원을 웃도는 실적을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냈고, LG유플러스는 1조 클럽의 문턱에 다다랐다.

SKT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9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감했다. 4월 발생한 유심 서버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보상안을 집행했고, 1300억 원대 과징금과 회망퇴직 비용 2500억 원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처참하게 꺾였다. 현재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

적 대응에 나섰으나, 사고 수습에 따른 재무적 타격은 이미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반면 KT는 부동산 덕분에 ‘착시’에 가까운 호실적을 냈다. 영업이익 2조477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0% 넘게 폭증했다. 통신 본업의 성과라기보다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분양 이익 등 비통신 분야의 일회성 수익이 실적을 떠받친 결과다.

특히 하반기 발생한 해킹 관련 비용이 아직 실적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수익성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가입자 이탈 영향 또한 1분기에 반영될 전망으로, 증권가에서는 가입자 31만 명 순감에 따라 영업이익 추정치가 800억 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의 보안 이슈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안정적으로 흡수하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영업이익 93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성장했으며, 무선 매출과 데이터센터 등 기업 인프라 사업이 고르게 성장했다. 대형 악재를 피하면서 실익을 챙긴 유일한 사업자로 평가받는다.

최유진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분기 이익 바닥을 통과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금까지 투자했던 AI 관련 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는 통신 3사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악재를 대부분 털어냈다고 분석한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인공지능 전환(AI)’을 통한 수익 모델 증명으로 향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에이닷, KT의 소타K,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각사가 내놓은 AI 전략이 일회성 비용 부담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지가 2026년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이동사들의 데이터센터 사업부 합산 매출액은 1조5500억원 수준일 것”이라며 “연평균 약 19%씩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2조46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웅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25년 일회성 이익(KT 부동산 이익)과 비용(SKTEL 및 KT 해킹 관련 보상안, SKTEL 및 LGU+ 회망퇴직)이 기저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위약금 면제로 인해 마케팅 비용은 증가하지만 인건비 등 비용 효율화가 이를 상쇄해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조정밀측위 AI로 부산신항 안전 지킨다

LGU+, AI 안전관제시스템 구축 이동장비·작업자 위치 실시간 파악

LG유플러스는 부산신항 5부두 항만 작업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조정밀측위(RTK) 기반의 인공지능(AI) 안전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부산신항 5부두 운영사 비엔씨(BNCT), 해운·항만 IT 전문기업 싸이버로지텍과 함께 구축한다. RTK를 활용해 항만 내 컨테이너 하역차량 등 이동장비와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AI 기반 CCTV 분석을 통해 위험 상황이 예견될 경우 작업자와 장비, 관제센터에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구조다.

AI 안전관제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RTK다. 기존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은 위치 오차가 최대 15m까지 발생해 장비와 작업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항만은 대



부산신항 5부두에 위치한 항만 크레인에 설치된 조정밀측위(RTK) 단말의 모습. /LG유플러스

형 장비가 빈번히 이동하고 컨테이너 적재로 시야가 제한돼 정밀한 위치 관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상 기준국과 전용 단말을 연동해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보정·추적하는 RTK 방식을 적용했다. 지난해 진행한 실증에서는 스트래들 캐리어의 위치를 1~2cm 단위

로 추적하고, 작업자와 장비 간 거리 기준 자동 알림 기능을 구현했다.

또한 국내 전역에 구축된 약 200개의 지상 기준국에서 생성한 보정 데이터를 자체 통신망을 통해 연중 중단 없이 전송하는 체계를 적용해 위치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김서현 기자

LG CNS, ‘AI 디지털화폐 자동결제’ 실증

한국은행과 국내 최초로 구현

LG CNS가 한국은행과 함께 인공지능(AI)이 상품 탐색, 구매 결정,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기반 디지털화폐 자동결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실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의 일환이다. 예금 토권이 유통되는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상거래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차세대 결제 인프라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G CNS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AI 자동결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디지털화폐의 활용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LG CNS와 한국은행은 이번 실증에서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가상의 페르소나로 설정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 플랫폼에서 콘텐츠 소스를 구매하는 실제 상거래 환경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가 상품 탐색과 비교, 구매 결정까지 수행하는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현하고 기술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했다. /김보민 기자

SKB 말로 하는 AI상담 운영

SK브로드밴드는 말로 문의하면 AI가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화면으로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는 ‘보면서 말로 하는 AI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이번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요금 조회 ▲가입 신청 ▲상품 변경 및 결합 신청 ▲고장 진단 등 200여 개의 자주 문의하는 업무를 상담원 연결 없이 24시간 간편하게 화면을 보며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보민 기자

SKT, 협력사 169곳과 ‘안전 우선’ 다짐

성과 공유하고 향후 계획 논의

SK텔레콤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안전보건 협력사 169곳을 초청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협력사들과 함께 2026년도 안전보건 상생 협력 계획을 공유하고, 작업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안전관리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회사는 협력사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심화 교육, 1대1 맞춤형 방문 컨설팅, 안전체험교육관 운영, 협력사 안전공모전 등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실천 우수 기업 11곳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야간 도로 굴착, 관로 이설, 깊이 2.5미터 이상 맨홀 내부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 환경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기업 8곳과,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한 기업 3곳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서현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미디어 IT 연속 수주

MBN·롤파크 시스템 고도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방송·미디어 분야 IT 사업들을 연이어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MBN의 ‘차세대 보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방송·미디어 IT 서비스는 기획, 컨설팅, 개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현재 15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방송사의 보도 시스템과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관리 시스템, 유튜브 플랫폼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번 사업을 크게 ▲사용자 중심의 보도·편성·광고 시스템 구축 ▲보안 강화를 통한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체계적인 사업 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전문인력 구성을 통한 사업 전문성 확보와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작업 흐름 혁신, 접근 제어 기반 보안 체계 구축, 고객 주도의 변화관리 지원 등 차별화된 4대 추진 전략을 앞세워 보도 정보 시스템의 AX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MBN 차세대 보도정보시스템이 오는 10월 정식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CJ올리브네트웍스는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e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 방송 시스템 고도화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해당 사업이 카메라 시스템, 선수와 중계진 간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장비, 실시간 전송 장비 등 기존 노후화된 e스포츠 방송장비를 신규 방송장비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김보민 기자 kbm@

삼양식품 등 황제주, 코스피 랠리·업황호전에 주가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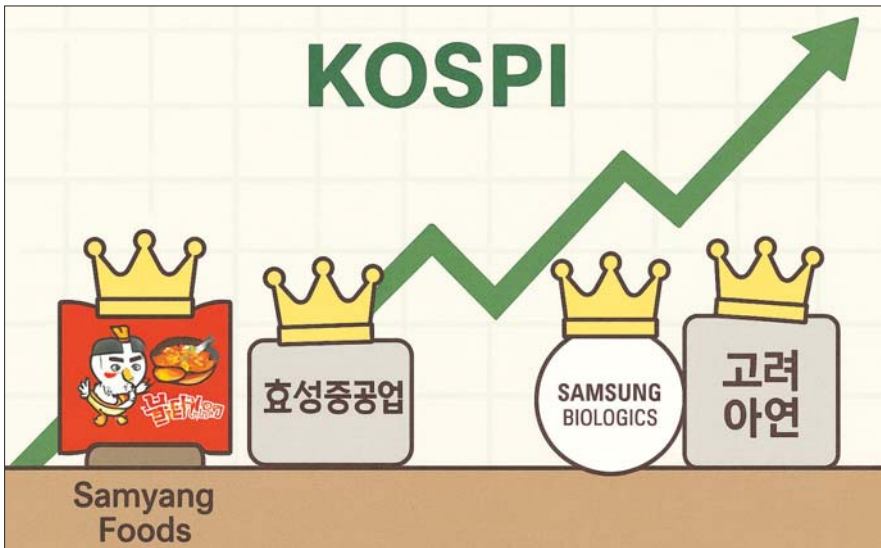
삼양식품, 가장 먼저 황제주 올라
불닭볶음면 인기로 공급부족 상태

효성重, 올해 주가 상승률 32%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지속 전망

삼바, 4·5공장으로 실적성장 견인
목표주가 200~230만원으로 상향

#. 사업을 하는 김모 씨는 2024년 5월 삼양식품이 농심 시가 총액을 추월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삼양식품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커질 수치를 놓고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확신을 갖게 됐다. ‘K-푸드’ 열풍이 불면서 삼양식품이 수익성, 성장성, 업계 1위 등 3박자를 갖췄고 이를 지속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삼양식품 주식을 사들여 최근 보유 주식 수가 3000주를 넘어섰다. 평균 매입 단가는 60만원 남짓. 최근 주가가 123만원을 넘어서면서 수익률이 90%를 웃돈다. 1년 반 남짓 만에 두 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는 최근에도 삼양식품 주식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내 황제주(주당 100만원을 넘는 주식) 종목’ 관련 이미지.

김 씨처럼 ‘황제주’ (주당 100만원을 넘는 주식)를 사들인 동학개미(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코스피 상승 랠리와 업황 호전이 맞물리면서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식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다만 황제주 등극이 향후 주가 상승을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과거 황제주였던 아모레퍼시픽·엔씨소프트 등의 고점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수

년간 손실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일명 ‘황제주의 저주’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주당 가격 100만원이 넘어가는 종목은 효성중공업(234만9000원), 삼양식품(123만5000원), 고려아연(155만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177만8000원) 등 4개 종목이다.

가장 먼저 황제주 반열에 오른 것은 삼양식품이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0만원으로 넘어선 후 황제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166만원까지

터치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음식료 업종 내에서 가장 뚜렷한 해외 사업 성장성과 높은 수익성을 유지 중”이라며 “밀양2공장 가동에도 불구하고 불닭볶음면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200만원을 유지했다.

효성중공업은 가장 비싼 주식이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1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업체다. 미국 AI(인공지능) 기업들의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몸값도 오르고 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효성중공업 목표주가를 나란히 300만원으로 상향제시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1.4% 증가한 7조1539억원, 영업이익은 36.6% 증가한 9713억원으로 예상한다”며 “수익성 확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목표주가를 290만원으로 상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호평을 받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주가를 200~230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인적분할 전 기존 목표치

는 160만원 수준이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조3926억원, 영업이익은 2조4143억원으로 영업이익률(OPM) 45% 수준이 예상된다”며 “4공장 풀가동과 5공장 가동률 상승(19%)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치는 미국 공장 매출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전망이다. 목표주가는 220만원을 제시했다.

성장성에 대한 의문과 황제주의 저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황제주의 저주란, 주가가 100만원 넘는 황제주가 된 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거나 기업 가치가 악화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거래량이 줄고, 유동성이 악화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과열된 기대와 함께 고점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황제주에 등극하며 게임주의 시대를 알렸던 엔씨소프트는 연이은 신작 게임 흥행 실패로 현재 주가는 2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LG생활건강도 ‘황제주’ 등극 후 중국 시장 부진과 내수 소비 침체,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현재 주가는 27만 4000원으로 내려왔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24시간 거래, 증권 노동자·투자자 희생양 삼는 일”

거래소, 내년 말 ‘24시간 거래’ 목표
사무금융 노조, 연장 철회 기자회견
증권사, 인력 확보·시스템 정비 부담
연장 시 가격발견 기능 약화 가능성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노조와 증권업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인력·시스템 정비에 대한 부담과 투자 피로도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치적 썰기’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분부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철회

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사무금융 노조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은 증권 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넘어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 전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할 경우, 정 이사장의 퇴출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시간 연장이 정 이사장의 치적을 위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거래시간 연장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할 바 있다.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날인 13일에는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거래소는 토탈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 등 온라인 주문으로만 제한해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노조 측에서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자본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을 반가워하는 곳은 찾기

힘들다.

증권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력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속도를 맞춰 나가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건 맞지만 대형사들도 반응이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다”며 “전산 장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인 동시에, 시간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고 일어나니 청산당한 코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인식이 존재할 텐데, 관련 업계의 노무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고 밝혔다.

중소형사들의 고민은 더 크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 대비 중소형사는 인력과 비용적인 여건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한국거래소가 말한 날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당시에도 중소형사들은 실질 거래량이 높지 않아 투입된 자원 대비 효율이 적었다. 이번에는 더더욱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형사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시장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됨으로써 가격 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시장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재고 조작으로 순이익 부풀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적발

코넥스 상장사 불박에 과징금 등 의결

코넥스 상장사이자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불박이 수년간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불박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 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이를 통해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도별 재고자산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



/금융위원회

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에 달했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면서 매출원가는 줄고, 그 결과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구조다.

증선위는 또 불박이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재고 수불부 수량을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방해한 점

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향후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 회사 및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 등 최종 제재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증선위는 안전회계법인이 2017~2019년과 2021년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재고자산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전에는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금 50% 추가 적립, 불박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운용, ‘휴머노이드 ETF’ 2종 인기

차이나·코리아휴머노이드 ETF
순자산 합산 규모 9000억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2일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와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의 순자산 합산 규모가 9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의 순자산은 4834억원,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의 순자산은 4445억원이다.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는 국내 상장 휴머노이드 ETF 중 순자산 1위를 기록했으며,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는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 자금 3352억원이 유입되며 테마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는 국내 상장 휴머노이드 ETF 가운데 최대 규모로, 중국의 로봇 제조 역량과 공급망, AI 상용화 속도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는 지난 6일 상장일 15분 만에 초기 설정 물량이 완판됐다. 한국 기업들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자 투자자들의 국내 휴머노이드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해당 ETF는 올해 상장 이후 수익률 43.00%를 기록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해수부, K-수산식품 해외진출에 791억 투입

전년 대비 예산 236억 대폭 늘려
수출바우처 등 지원대상 확대
수출효자품목 김, ‘gim’으로 홍보

K-수산식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내산 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해외인지도 제고, 신규판로 개척 등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2026년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236억원 늘어난 791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1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방침이다.

또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늘린다.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

한 면세점 마케팅, 수출효자품목 김의 한국산 인식 확대를 위한 ‘gim’ 명칭 홍보 등에 나선다.

해외에서 김은 nori·seaweed 등으로 불리며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저조하다. 전 세계 소비자 대상으로 gim 명칭을 확산해 우리 김이 타국산과 구분될 수 있도록 위상을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신

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산지에서 수출국 현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유통·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물류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 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의 취득 지원(48→50종)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위험요소 대응을 위한 보험 지원(100→200개사)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시장 분석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국내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026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내용을 수출기업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선다.

설명회는 다음 달 2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3일 강원·경북, 4일 서울·경기·인천, 9일 충남·충북, 10일 전남·전북, 11일 제주에서 예정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사업장 감독 5.2만 → 9만 확대… “위법 적발 시 즉시 제재”

노동부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노동분야 ‘3대 격차해소’ 역량 집중
산업안전 분야 감독 인프라 대폭 확충

정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정조준해 2026년 사업장 감독 물량을 9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반복적·고의적 법 위반 기업에는 즉각 제재를 원칙으로 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컨설팅 등 지원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감독 규모는 전년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이다.

지나해 도입한 노동·산업안전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의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장시간·공짜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3대 격차

해소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감독을 도입해 숨은 체불까지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이 재발하면 수시·특별 감독으로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장시간 노동 감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연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사업장도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이전부터 감독을 적극 추진한다.

청년·외국인·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감독도 확대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지자체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은 방학 기간 집중 점검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

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연간 200곳에 대해 중점 감독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을 현장에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고, 익명 제보에 기반한 감독을 대폭 늘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익명 제보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 법 위반율(57%)보다 높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895명에서 2095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고, 전국 70개 패트론타와 패트론타 286대를 운영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다. 전국 지방 관서에 드론 50대를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한다. 시정조치 위주였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하고, 모든 점검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한다.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적용한다.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제공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감독으로 전환한다. 반면 중·대형 사업장에는 전담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 엄정 책임을 묻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근로자 66% 주 52시간 초과근무

노동부, 하청업체 근로감독 실시
임금 3700만원 미지급 사례도 적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한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 하청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해당 현장 하청업체 4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부는 휴

일근로수당 등 임금 3700만원이 미지급된 사례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앞서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1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당시 고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소속 업체를 포함해 하청업체 4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들 하청업체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

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가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휴한기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이달 말까지 해당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야간·철야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한파 안전수칙과 보건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준중양급전’ 오는 봄철부터 본격 시행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와 집합전력자원(VPP)을 급전자원으로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양급전 운영제도’를 오는 봄철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철 경부하기 전력계통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력거래소는 육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제도를 2026년 봄철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급전지시를 받지 않던 비중양급전 발전기를 경부하기에 한해 급전 운영에 활용하고, 해당 발전기가 제공한 제어가능용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시범 도입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참여 대상은 제주와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 변전소에 접속된 발전기에 한정된다.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20MW 이하 소규모 발전기는 전력중개사업자(VPP)를 통해 집합전력자원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운영 기간은 봄·가을철인 3~5월과 9~11월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참여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지시에 1분 이내로 응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격제어 성능을 갖춰야 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 ESG 경영실천’ 기업·기관 68곳 선정

정부가 2025년 ‘농어촌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인정 기업·기관으로 68개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간기업 17개사와 공공기관 51개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의 ESG 경영을 농어촌 상생협력으로 연결하는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가 본격 확산하고 있다. 올해 인정 기업·기관 수는 전년대비 30% 늘어나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농어촌ESG 실천인정제는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시범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해,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농어촌 ESG 심의위원회 심의와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이뤄졌다.

선정 기업·기관 수는 2022년 23개사에서 2023년 41개사, 2024년 52개사, 올해 68개사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수사례로는 롯데케미칼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꼽혔다. 롯데케미칼은 5억원 상당의벼를수매해 지역 복지단체 등에 쌀을 기증한 점이 사회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양재·개포 ‘ICT진흥지구’ 지정 성수 ‘문화콘텐츠’ 권장업종 추가

서울시 1차 도시계획위원회

진흥지구 제도 기반 전략산업 재편
AI·로봇·바이오 등 생태계 확장
市 “자치구 특화산업 적극 지원”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

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고유의 산업정책 플랫폼

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의결로 서울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지역인 양재 ICT 진흥지구와 과거 ‘포이밸리’로 2000년대 벤처붐을 주도하던 개포 ICT 진흥지구에서 공동입안해 진흥지구로 지정된 최초 사례이다.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독점·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8년간 진흥지구 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제 산업구조가 AI, 바이오, 로봇, 핀테크 등 첨단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정책

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용산 AI·ICT,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대상지를 선정했고, 관악 R&D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추진해 왔던 진흥지구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개 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의뢰함과 동시에 제도개편 방향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시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육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시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강서구 ‘에코스쿨’ 조감도

서울시교육청, 강서구 ‘에코스쿨’ 첫 삽

227억 투입… 12월 개관 목표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공진중학교 폐교 부지에 조성 중인 가정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폐교 부지를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이번 사업은 2023년 10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 심사, 2024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 기반이 확보됐다.

현재 구조 공사와 주요 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에코스쿨은 연면적 6783㎡,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227억원의 시설 사업비가 투입된다.

에코스쿨 완공 후 학교 교육과 연계한 11개 주제, 약 40여 개의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에코스쿨에서 기후 위기, 생물다양성, 에너지,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배우고 체험하게 된다.

1층에서는 줄넘기 발전기 등 적정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실습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2층에서는 에코아트 등 유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와 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층에는 토종 작물 및 먹거리 교육이, 4층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 중심 교육이 운영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공진중에 조성되는 에코스쿨은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배움과 실천으로 풀어내는 서울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은 물론 시민과 지역이 함께 참여해 변화를 만들어 가는 생태·환경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교권침해 행위, 교육감이 직접 고발”

폭행·성희롱 등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 개인을 통한 민원접수 금지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보위에서 심의해 관찰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발 절차·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이 생긴다.

또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도 명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의 특별휴가 5일에 5일 이하의 추가 휴가를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논의됐던 교권침해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은 제외됐다.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를 국회에서 논의한다.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런’ 시범 운영

도심 차로 일부 운동공간 활용

서울시가 도심 차로 일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는 ‘쉬엄쉬엄 모닝 런(가칭)’ 시범 도입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주말 이른 아침, 도심 속 시민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쉬엄쉬엄 모닝 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쿠알라룸푸르 ‘카프리모닝(Car-Free Morning)’ 현장을 방문해 얻은 아이디어를 서울 실정에 맞게 설계한 행사다.

기록·경쟁 중심의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러닝, 걷기 등 원하는 운동을 자신만의 호흡과 방식으로 즐기는 생활형 운동 프로그램이다.

기존 마라톤 대회와 달리 교통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주말 아침 시간대에 도로 전면 통제가 아닌 ‘일부 차로’만을 활용, 차량 교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

앞서 시는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에 ▲대회 개최시기 제한 ▲출발시간 조정(오전 7시30분 이전) ▲장소별 적정 참가인원 ▲소음 65dB 이하 ▲도로 위 쓰레기 신속 처리 등을 명시했다.

시는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 운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체육·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영향, 안전 관리,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범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하남시, ‘누구나 돌봄’ 사업 본격 추진

5개 기관 업무협약… 내달부터 서비스

하남시는 ‘2026년 누구나 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생활돌봄 및 동행돌봄 분야 3개 기관, 식사 지원 서비스 1개 기관, 주거지원 서비스 1개 기관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오는 2월

부터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 누구나 돌봄’ 사업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로,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되며, 120% 초과 150% 이하 가구는 서비스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교육부,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출범

AI 미래교육 등 4개 분과 구성·활동

교육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할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교육부는 22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27년 1월 21일까지 향후 1년간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

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역 교육 혁신의 총 4개 분과로 구성해 활동한다.

또 정책자문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분과별 추진 상황 공유 및 심층 논의, 의제 발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학계·연구원·교육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역임한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육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논의 주제를 계속 발굴하고, 필요시 새로운 분과를 개설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버거업계, 최대실적 질주… 치킨·마라 등 신제품 라인업 확대

소비불황에도 시장 성장세 뚜렷
5000~7000원대 가성비 전략 주효
직화·매운맛 등 제품 경쟁력 강화

고물가로 외식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햄버거가 대표적인 '가성비 외식'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며 버거업계가 불황 속에서도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맥도날드와 롯데리아는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맥도날드는 2024년 연간 매출 1조2500억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11.8% 성장했고,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3년 내 매출 2조원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롯데리아 역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운영사 롯데GRS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8221억원을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1조원대 재진입이 유력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6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기존 역대 최대 매출이었던 2017년(1조896억원)을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다리 크리스피치킨버거' /롯데리아

이 같은 성과는 햄버거가 '가성비 외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순댓국과 짜장면 등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는 점심시간 런치 메뉴 기준 5000~7000원대 세트를 유지하고 있다. 버거킹 역시 애플리케이션 주문을 활용하면 7000원대 세트 구매가 가능하다. 조리 공정이 단순하고 회전율이 높아 원가 상승 부담을 상대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해외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들은 한때 고급화 흐름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가격 부담과 소비자 인식 한계에 부딪히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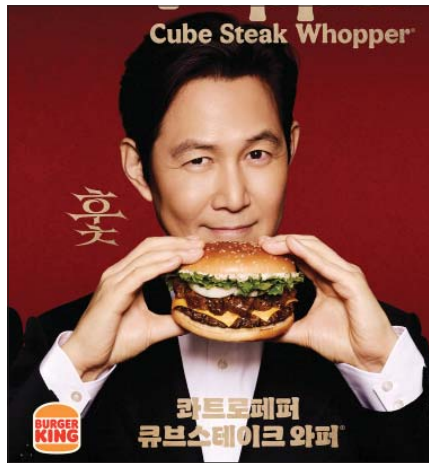


'맥크리스피 마라 해쉬 버거' /맥도날드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고물가 환경 속에서 고가 메뉴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커지면서다. 특히 미국 현지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진출하며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미국 3대 버거 강남 상륙전'은 불과 2~3년 만에 줄줄이 매각 또는 철수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굿스터프이터리는 2022년 5월 국내에 문을 연 지 불과 5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고, 같은 해 강남 1호점을 열었던 슈퍼두퍼 역시 약 2년 만에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최근까지 매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파이버가이즈도 현재 매출로 거론되고 있다. 10만원이 넘는 고가 메뉴



'와트로페퍼 큐브스테이크 와퍼' /버거킹

로 화제를 모았던 고든램지버거 역시 가격 대비 만족도 논란 속에 초반의 인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급화 전략이 통하던 시기를 지나 현재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소비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버거업계는 연초부터 신메뉴를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롯데리아는 지난 6월 '통다리 크리스피치킨버거' 2종을 선보이며 치킨버거 라인업을 강화했다. 맘스터치는 직화 방식으로 구워낸 고기를 활용한 '직화불고기버거' 2종을 출시하며 불고기버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맥도날드는 '맥크리스피 마라 해쉬 버거'와 '맥크리스피 마라 클래식 버거'를 통해 마라 트렌드를 전면에 내세웠고, 버거킹은 '와트로페퍼 큐브스테이크 와퍼'를 출시하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했다. 뉴욕버거는 리브랜딩과 함께 가성비와 합리적 프리미엄을 앞세운 신메뉴를 선보였으며, 노브랜드 버거와 KFC 역시 매운맛·치킨 전문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경쟁에 가세했다.

시장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점 시장 규모는 2014년 2조982억원에서 2024년 4조4940억원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조6513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되며, 추세대로라면 수년 내 5조 원 시장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햄버거는 가격 대비 포만감과 접근성이 가장 확실한 메뉴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점심 시간대 할인이나 앱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6000원 안팎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선택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제품

마트 베이커리, 케이크 판매 급증… 합리적 가격·품질 주효

신세계푸드
고물가에 디저트 구매패턴 변화
가성비 제품 중심 일상소비 이動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디저트 구매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주로 찾던 케이크가 최근에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일상 소비로 옮겨가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마트 베이커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22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마트 베이커리에서 판매한 케이크의 판매량은 2024년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 베이커리의 케이크 판매량은 51%나 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외



지난 15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이마트 베이커리 딸기 디저트 신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식과 디저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마트 베이커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신세계푸드 측은 분석했다.

또한 기존 마트 베이커리에 대한 인식

을 깨기 국내산 생과일과 동물성 크림 등 원재료의 양과 품질을 대폭 강화한 점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신세계푸드가 국내산 딸기를 풍성하게 올리고 프리미엄 크림을 사용해 2만원대로 선보인 '딸무크(딸기에 무너진 케이크)'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전문점 수준의 케이크로 호응을 얻으며 누적 판매량 1만 2000개를 돌파했다.

트레이더스 베이커리에서 선보인 '딸기 한가득 케이크' 역시 3~4인 가구를 위한 3만원대 초가성비 케이크로 입소문이 나면서 한정수량 1만 개가 사전 예약으로 빠르게 소진된 데 이어,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에 따라 추가 생산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같은 마트 케이크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신세계푸드는 지난 15일부터 이마트 내 베이커리 매장에서 논산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딸기 디저트 5종을 선보였다. '떠먹는 논산 딸기 케이크'는 합리적인 가격과 진하고 부드러운 맛을 앞세워 출시 4일 만에 1만개, 1개월 목표 판매량의 40%가 판매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케이크 등 디저트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양한 디저트 제품을 선보이며 마트 베이커리의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마일드’ 새단장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 마일드(사진)'의 패키지를 새단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일품진로 마일드가 지닌 '가장 부드러운 맛'과 '프리미엄 감성' 두 가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부드러운 주질 콘셉트에 맞춰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 '에메랄드 그린' 색상을 적용해 제품의 정체성과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리뉴얼 출시된 일품진로 마일드는 1월 5주차부터 전국 유통, 가정채널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용량, 주질, 가격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신선 먹거리 최대 40% 할인

굴·고등어·소고기 등 행사… 28일까지

이마트가 고물가 속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일주일간 신선 먹거리를 최대 40% 할인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과일, 채소, 수산물, 육류 등 필수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겨울철 대표 과일인 '돌빌레슈타인 하우스 감귤(1.4kg)'은 정가에서 8000원 할인된 1만2980원에, '제스프리 골드키위'는 7000원 할인된 9980원에 선보인다. 칠레산 체리는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채소

류에서는 제주 세척당근과 양상추를 각각 20%,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육류 코너에서는 호주산 곡물 비육 냉장 소고기(구이·불고기·국거리)를 40% 할인한다. 브랜드 돈육 앞다리·뒷다리와 한우 국거리·불고기는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한우 팩 상품(구이용 갈비, 양지 국거리 등)은 5팩 구매 시 2만 원을 할인해 5만원에 골라 담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물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제주 은갈치와 국산 생고등어는 30% 할인하며, 국내산 자연산 참다랑어회(240g)는 비축 물량 10톤을 풀어 30% 할인된 1만9460원에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SSG닷컴, '바로퀵' 무료배송 행사

3만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 쿠폰

SSG닷컴이 쿠팡커머스 서비스 '바로퀵'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오는 28일까지 무료배송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바로퀵은 인근 이마트 매장에 있는 상품을 반경 3km 이내 목적지까지 이륜차로 1시간 내외에 즉시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SSG닷컴은 행사 기간 바로퀵을 통해 이마트 상품을 3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ID당 2장의 무료배송 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급증한 쿠팡커머스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SSG닷컴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바로퀵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문 건수가 전월 동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 세대의 이용률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별 주문 비중은 40대가 40%로 가장 높았고, 50대(30%), 30대(20%)가 그 뒤를 이었다. 전월 대비 주문 증가율 역시 60대(58%)와 50대(51%)가 가장 높아,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확인됐다.

SSG닷컴 관계자는 "이번 무료배송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한 장보기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U, 'get 모닝' 4종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1인 가구와 직장인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아침 식사 시장을 겨냥해 'get 모닝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get 모닝' 시리즈는 'get 모닝 꼬마김밥' 2종(스팸 청양, 통스팸)과 'get 모닝 머핀(잉글리쉬 햄에그, 베이컨)' 2종이다.

제품 출시를 기념해 'get 커피'와 함께 구매하면 1000원을 상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또한 커피와 결들이기 좋은 '넛츠 초코 쿠키'와 '스윗 시나몬 롤' 등 디저트 2종도 출시해 커피와 동반 구매 시 2000원 안팎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손종욱 기자

제약바이오 “약가개편 강행 땀 제조생태계 붕괴”

내달 건정심 앞두고 노사 반발
제네릭 약가 53.55→40%대 인하
향남단지 “국산약 30% 생산기지”
R&D·설비투자축소, 라인폐쇄 우려
필수약 품질·수입의존 심화 경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추진을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혁신 연구개발(R&D) 축소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 고용 불안 등 산업 기반인 ‘제조 생태계’까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경기 화성 향남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노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의결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제네릭의약품 약가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한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는 비대위를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 위원장장, 향남제약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22일 경기 화성 향남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비대위 주최 ‘노사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은 제약 산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약가제도 개편안의 위험과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 의약품 생산 핵심 기지다. 현재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밀집해 있으며 48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중단, 생산 라인 폐쇄 등 사실상 생산 현장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또 필수 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자급력 상실은 결국 고가 수입의약품 의존도만 높여 의약품 공급 불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산업 전체 종사자 중 10% 이상의 실

직 등 인력 감축도 예상된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서정오 전무는 “향남제약공단은 국산 의약품의 30%를 생산하는 전초 기지이며 경기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클러스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전무는 “설비 투자가 고사될 위기”라며 “국내 제약사 적자 전환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 연구, 설비 고도화 등은 사라지고 의약품 품질, 해외 의존도 심화, 국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 보건안보가 위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고용 대란의 여파도 짚었다. 서 전무는 “이번 개편안으로 매출이 10%만 줄어도 당장 500명의 직원이 생업을 잃으며 이를 3인 가구 기준으로 환

산 시 무려 1500명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보아야 한다”며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으로 얻은 수익은 곧 신약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과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위한 재투자 자원으로 캐시카우가 끊기면 혁신은 커녕 공장 가동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와 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일방적 약가인하 추진 중단 ▲국내 제약산업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노사 간담회에 함께한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은 K바이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약개발 도전과 실패 모두를 적극 지원해 반도체보다 10배가 넘는 규모의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

에이피알

뷰티기기 600만대 돌파
해외 판매 60% 넘었다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AGE-R)’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600만 대를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해외 시장 공략과 제품군 확대가 글로벌 판매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미국, 일본 등 기존 주요 시장 공략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 신규 지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해외 판매 비중을 높였다. 뷰티 디바이스 전체 누적 판매에서 해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제품군을 다양하게 구축해 왔다. 단일 효능 중심에서 벗어나 사용 목적과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스칸케 어 브랜드 ‘메디큐브’ 화장품과 병용 사용하도록 해 홈 케어 경험을 고도화했다.

특히 만능형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가 출시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브랜드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청하 기자



에이지알(AGE-R) ‘결합형 디바이스’ 제품군 /에이피알

SK바이오사이언스, 차세대 에볼라백신 개발 가속화

MSD, CEPI서 3000만달러 지원
수율·열안정성 개선 공정 구축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MSD)가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 ‘자이르 에볼라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펀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개발 파트너사로서 수행 중인 주요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CEPI는 MSD에 총 3000만 달러를 지원하며, MSD는 해당 자금을 기반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힐레만연구소에 위탁한 연구개발, 제조 공정 개선, 임상시험용 백신 개발 등 핵심 프로젝트 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MSD가 보유한 자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존 아르 로팅겐 웰컴트러스트 CEO(왼쪽부터), 프리아 아그라왈 머크 Health Equity&Partnerships부문 부사장, 리처드 헤첵 CEPI CEO, 라만 라오 힐레만연구소 CEO, 김익중 SK바이오사이언스 BD2실장이 ‘차세대 자이르 에볼라’ 백신 개발 펀딩 및 협력에 대해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르 에볼라 백신(WHO-PQ 획득)의 기존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점에 주목해 추진됐다. 특히 의료·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이르 에볼라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의 수율을 높이고 열안정성을 개선한 제조공정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힐레만연구소는 개

량된 에볼라 백신의 임상 개발을 주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자회사 IDT바이오키는 백신의 개량된 원액 제조 공정과 이에 연계된 완제의약품 개발을 담당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CEPI 펀딩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공 백신 프로젝트의 핵심 실행 파트너로서, 자체 백신 생산시설인 안동 엘 하우스(L HOUSE)에서 축적한 공정·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IDT바이오키와 협업해 임상용 백신 생산과 제조공정 고도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저소득국(LMIC)에서의 백신 경제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IN-B00009’ 3상 모집 완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

GLP-1 비만치료제 경쟁 본격화

HK이노엔(HK inno.N)은 지난 20일자로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비만치료제 ‘IN-B00009’의 국내 임상 3상 대상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HK이노엔은 40주간의 투약을 연내 완료하고 신속히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HK이노엔은 지난 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B00009’의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첫 대상자 등록을 시작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총 313명을 모집했다.

이번 임상 3상은 갑각삼성병원을 포함한 총 24개 의료기관에서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국내 성인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IN-B00009 또는 위약을 주 1회 피하주사로 투여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1차 평가지표는 기저치 대비 40주 시점의 체중 변화율과 체중 감소율 5% 이상인 시험 대상자 비율이다.

IN-B00009는 2024년 글로벌 바이오 기업 사이워드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도입한 물질이다. /이세경 기자 selee@

광동제약,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광동제약은 지난 21일 광동과천타워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선포식에서 CP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신뢰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내재화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상시 점검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위기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광동제약은 윤리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또 CP 도입 이후 전담조직 구성, 자율준수 편람 제작·배포, 임직원 교육, 선제적 사전 감시체계 작동 등 실질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hy

‘할인광’ 프로모션 진행
유산균 등 최대 81%↓

hy가 유튜브 웹 예능 ‘할인광’과 최대 81%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솔로몬코드’가 제작 및 연출하는 할인광은 방송인 황광희와 브랜드 실무자가 출연해 시청자에게 과격적인 혜택을 직접 발표하는 방식의 커머셜 예능 콘텐츠다. 이번 행사 품목은 총 21종으로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hy는 프로모션을 통해 캡슐형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리브 100억 유산균(1개월분)’을 정가 대비 67% 낮춘 7900원에 판매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높은 ‘발효 발효홍삼K(30개입)’는 53% 할인 가격으로 4000세트 준비했다.

발효유와 음료 제품군 대상에 포함됐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 미니(10개입)’, ‘스트레스케어 씬(8개입)’ 등 hy 대표 브랜드 제품을 혜택가로 제공한다. 최근 리뉴얼을 거친 장 건강 발효유 ‘메치니코프 8개입 2종’은 56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구매 금액별 추천 경품과 댓글 이벤트도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대학생 사로잡은 ‘갤럭시 캠퍼스’, 회원 100만명 돌파

삼성전자 교육특화 플랫폼 자리매김
대학생 비중 약 80%로 가장 많아

삼성전자의 ‘갤럭시 캠퍼스’가 오픈 5년 만에 회원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학생·교사 대상 운영하는 공식 교육 할인몰 ‘갤럭시 캠퍼스’가 누적 회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1월 ‘갤럭시 캠퍼스’ 서비스 시작 후 약 5년 동안 ▲제품 할인 ▲제품 사용팁 ▲전용 커뮤니티 서비스 ▲회원 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학생과 교사들에게 교육 특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갤럭시 캠퍼스’는 2021년 대학(원)생과 대학(교)원들을 위한 삼성전자 공식 교육 할인몰로 시작됐다.

이어 2022년 고등학생, 2025년 초·중·고 교사로 가입 대상을 순차 확대하며



삼성전자 공식 교육 할인몰 ‘갤럭시 캠퍼스’의 ‘갤럭시 캠퍼스 100만 축하파티’ 이벤트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교육 현장에 있는 고객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갤럭시 제품과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 왔다.

가입 회원 중 대학생 비중이 약 80%로 가장 컸으며, 고등학생이 뒤를 이으며 1020 세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갤럭시 캠퍼스에서 구매가 많았던 제품군은 ▲스마트폰 ▲워치·버즈 등 웨어

러블 ▲태블릿 ▲PC 순으로 집계됐다.

‘갤럭시 캠퍼스’는 교육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스마트폰·PC·태블릿·웨어러블·액세서리 등 총 18개 카테고리의 갤럭시 제품을 최대 64% 할인가로 제공한다.

실제로 갤럭시 캠퍼스에서 사전 구매한 ‘갤럭시 S25 시리즈’와 ‘갤럭시 Z 폴

드7·Z 플립7’ 수량이 모두 전작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020 갤럭시 인지도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갤럭시 AI를 활용한 학습법 등을 알려주는 ‘갤럭시 팁스’,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 제품과 AI 기능을 소개하는 ‘갤럭시 쌤꿀팁’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AI 활용 공부 인증, 교사 AI 활용 수기 등 참여형 커뮤니티 이벤트를 운영해 회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캠퍼스’ 회원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31일까지 ‘100만 축하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갤럭시 캠퍼스’에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 등을 댓글로 남긴 회원 중 추첨을 통해 ‘배달의민족 상품권’을 증정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NC AI, 이노비즈협회와 업무협약

NC AI가 21일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중소기업 AI 활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NC AI 이연수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C AI



오비맥주, 5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오비맥주가 글로벌 인사 평가 기관 ‘최고 고용주 협회(Top Employers Institute)’로부터 ‘2026 최우수 고용기업(Top Employer)’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김중주 오비맥주 인사 부문장(가운데)이 ‘최고 고용주 협회’가 수여하는 ‘2026 최우수 고용기업’ 상을 받고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비맥주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6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지방주도 성장, 호남서 시작되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신년인사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호남지역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등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호남권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등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국회와 지자체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향

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관심과 연대의지를 보여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호남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60년 만에 돌아온 적토마의 해를 맞아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인사회 행사에 이어선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중소기업 사랑나눔 콘서트’도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호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0여명을 초청해 중소기업계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 예술을 통한 휴식과 여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롯데케미칼, 협력사와 상생 안전 강화

‘세이프티 파트너십’ 포럼 열어

롯데케미칼은 지난 2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협력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세이프티 파트너십(Safety Partnership)’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롯데케미칼과 파트너사 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공유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롯데케미칼 상주 파트너사 38개사 대표와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이 참석해 각 사의 안전보건 관리 우수 사례와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프로그램은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및 동향 안내 ▲경영책임자 준수사항 교육 ▲파트너사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원관희 기자 wkh@

우리금융, 부산경남 지역 스타트업 지원

디노랩 발대식 개최

우리금융그룹은 지역 혁신 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와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디노랩 부산 2기’ 및 ‘디노랩 경남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우리은행, 부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등 지자체 관계자와 신용보증기금, 지역 투자자 등 지역 창업 생태계 관련 핵심 주체들이 참석해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영찬 우리금융지주 부장(오른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우리금융은 금번 선발된 기업들이 지역 거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아시아나·대한항공, 항공 탐험교실 개최

아시아나항공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직원 자녀 초청 프로그램인 ‘Why? 항공과학 탐험교실’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직원 자녀들에게 현직 정비사가 항공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사

◆KBS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커뮤니케이션부장 류란

◆계명대학교 ◇보직 △교무부총장·산학부총장 직무대리·계명시민교육원장 양근우 △학생·입학부총장 도달현 △경영부총장 윤우석 △의무부총장·계명대 동산의료원장 배재훈 △감사실장 하정철 △교무처장 양지웅 △기획처장 정진화 △학생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최해운 △입학처장 황병훈 △산학협력단장·RISE추진단장 이덕우 △대학원장 남창욱 △계명 아담스칼리지 학장 캐그리 애덤 스타볼라라사 칼리지 학장 김경미 △해소박물관장 김권구
◆광주과학기술원(GIST) ◇보직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의장 이병근 △수리과학과의장 김민기 △기계로봇공학과의장 설재훈 △인문사회과학부 부학부장 최원일

부음

▲윤상근씨 별세, 유수현(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장)씨 부친상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3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

▲정은균씨 별세, 정희웅(전주미르치과병원장)씨 장모상 = 22일 오전, 전주예수병원 장례식장 애실 301호,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순창 동계 선영. 063-285-1009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2 | 해질 / 17:46

1월

23일 (금)

음력 : 12월 5일

수도권 날씨

-12 ~ -2℃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7/-3

동두천 -16/-3

가평 -15/-3

파주 -18/-4

서울 -12/-2

양평 -14/-2

수원 -11/-1

용인 -11/-1

평택 -13/-1

백령도 -5/-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대상, 보은군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 협약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참여

대상이 충청북도 보은군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에 앞장선다.

지난 21일 보은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를 비롯해 대상 박성찬 유통CIC 구매실장, 신현각 상품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북 보은군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21일 충북 보은군청에서 열린 ‘보은군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대상그룹

개척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함량미달 ‘낙하산 인사’



이 정 혁
西村브리핑

‘정피아’(정치인과 마피아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의 낙하산 공습(空襲)이 본격화할 태세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80여 곳의 공기기업이나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가운데 절반은 기관장이 아예 공석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운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인사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선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이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통해 취임하는 바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기기업이나 공공기관장의 경우엔 청와대의 추가적인 검증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 정부 국정 운영 철학과의 궁합까지 따지다 보니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것도 인사 지연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낙천하거나 낙선을 하는 정치권 인사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인사 지연 원인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 일각이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 인사나 공공기관장 등 정부 요직에 사시 동기 9명을 포함 중앙대 출신들을 중용한 것을 비추어 볼 때 공석인 기관장 자리의 절반 이상이 이 대통령 측근이거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피아 공습의 예고편은 이미 금융권에서 시작된 느낌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연초 들어 새로 취임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이사진에 올랐다. 김성식 사장은 이 대통령과 사시 28회 동기이며,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장에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23년 7월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절 ‘노인 폼페’ 발언이 논란이 돼 혁

신위가 조기 해산되는 사태도 있었다.

이들 기관장 임명 후 그간 정체 국면에 있던 금융 공공기관 수장 인선도 재개될 것이라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보험개발원 등이 새로운 기관장 수요가 있는 곳들이다.

낙하산 인사는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명사다. 정권을 잡기까지 모두들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고 정권을 잡으면 바로 뜯어고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내로남불’식으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낙하산 인사는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 낙하산 인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도 낙하산 인사를 어쩔 수 없는 통치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친(親)정부 성향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성과 함께 최소한의 ‘품격과 상식’을 갖춘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반감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함량 미달’의 낙하산 인사는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보다 권력에 쫓겨 대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ljin@metroseoul.co.kr

차보험료 인상과 ‘원가의 물’



김 주 혁
(금융부)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은 늘 ‘서민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번 변곡점은 인상폭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원가 구조다.

지난해 12월 대형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1%로 치솟았다. 업계 집계 있는 2020년 이후 월 손해율이 96%대를 찍은 건 처음이다. 2025년 연간 누적 손해율도 대형 5개사 단순 평균 86.9% 안팎으로 전년보다 약 3.7%포인트(p) 높아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다. 손해율에 사업비가 더하면 합산비용은 100%를 넘어 적자압력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그런데 시장이 반영하는 보험료 인상은 1.3~1.4% 수준에 그친다. 2월 책임개시분부터 대형사들이 순차 적용하는 흐름이지만, ‘5년 만의 인상’이란 제목과 달리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CPI) 바구니에 포함돼 당국이 민감하게 보는 품목이라는 점도 인상폭이 ‘조율’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표를 둘러도 원가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사고가 늘어서’만 생기지 않는다.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누적되는 동안 부품비 등 물적담보 손해액은 꾸준히 늘었고, 정비 원가도 구조적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2026년 시간당 정비공임이 2.7% 인상되고, 차종별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표준작업시간’도 8년 만에 전면 개정이 예고돼 있다. 한 번의 사고가 ‘더 비싼

사고’가 되는 속도는 보험료보다 빠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인상폭을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원가의 물’이다. 부품·공임·작업 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근거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은 협상으로 끝내지 말고 제3자 검증과 사후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과잉수리·대차료·사고 처리 누수를 데이터로 관리해 절감 효과가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료는 숫자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인상폭보다 ‘사고 한 번’에 불어나는 수리비·대차료다. 그러나 숫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원가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 차보험료 논쟁은 ‘얼마 올랐나’가 아니라 ‘왜 비싸졌나’로 옮겨가야 한다. 그 근거가 보일수록 불신도 줄어든다. /gh471@

오늘의 운세 1월 23일 (음 12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녀 일로 신경이 쓰이나 점심 지나 해결된다. 48년생 감정 기복이 심한 자신을 탓하라. 60년생 좀 더 사색하여 말하면 좋을 듯. 72년생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 84년생 새 소식이 문전에 와있다.



37년생 제3자의 모략으로 구설 생기자 오늘은 외출 자중. 49년생 승진하게 되니만 사형통. 61년생 연인과의 갈등으로 종일 짜증. 73년생 서쪽으로 가서 다투지 않도록. 85년생 밝고 건전한 생각도 건강한 신체의 기능이 된다.



38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줄 것이다. 50년생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62년생 걸으면 걸을수록 질병은 완치된다 했다. 74년생 여행 중에 먹는 것으로 주의할 것. 86년생 한평생 민선 사람 둘 돌리니 허무.



39년생 핸드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51년생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인간은 없으니 저급하라. 63년생 비교는 소용 부재가 아니겠는가. 75년생 공부는 평행하랬으니 도전. 87년생 상상력으로 용두사미 현실을 직시하라.



40년생 기다렸던 소식이 드디어 오니 운세가 좋아진다. 52년생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64년생 일신이 피곤한데 출장소식이다. 76년생 오늘 1과 6수가 행운을 가져올 것. 88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고 비밀만 새 간다.



41년생 화를 참기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해보라. 53년생 시기 질투는 일생 도움 되지 않는다. 65년생 자칫 숫자 적는 것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 77년생 지나친 자존심은 불리하다. 89년생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42년생 외출할 때 도둑 수가 있으니 문단속을 잘하라. 54년생 새로운 창업에 장인이 재물 힘을 실어준다. 66년생 모임에 참석해 다투지 마라. 78년생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부딪치고 몰두하라. 90년생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43년생 막혔던 금전 운세가 호전되어 감사한 날. 55년생 부모의 돈이라도 공공에는 마음을 비우라. 67년생 청찬을 들으면서 일을 하니 업무속도가 부쩍 증대된다. 79년생 재물자선이 늘어나니 기쁘다. 91년생 동남쪽에서 귀인이 온다.



44년생 재권 관계가 잘 성립되어 다행이다. 56년생 연인과 함께 생일날 멋진 드라이브를. 68년생 동료 간에 실력 힘이 없으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80년생 과거의 베풀었던 공이 전환되어 길선 하다. 92년생 서북쪽에서 귀인이 온다.



45년생 나갔던 목돈과 문서에 기쁨이 생긴다. 57년생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려면 최 씨 중매인을 선택해보라. 69년생 돼지꿈 결과에 기쁨이 크다. 81년생 일반주택을 사는 것이 현명할 듯. 93년생 이비인후과 쪽의 건강을 조사해 보자.



46년생 관재수가 따르니 가정불화 수인 듯. 58년생 외도를 의심하지 말고 2세를 갖도록. 70년생 진리는 가까이 데 있다고 했다. 82년생 어느 경우에 해당되어도 불만 갖지 말도록. 94년생 복잡할 때 걸으면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아라.



47년생 사건 두지 말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59년생 귀한 기운이 움움에 가득하다. 71년생 차량안전에 유의. 83년생 사고는 예기치 않고 찾아오니 늘 주의가 요구된다. 95년생 직장 불평하러거든 다니지 말고 다니려면 불평하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AI시대의 문창성

AI시대가 되면서 당혹감을 감할 수 없다. 기술이 한 단계씩 발전하며 인간들은 자신을 대견하게 느끼며 문명의 발전을 즐겼던 것 같은데, AI 시대는 두려움이 지배적이다. 인간이 개발해 낸 AI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본다. 우선 직업이 줄어들고 있다. AI가 예측 이상의 빠른 속도로 각 분야에 응용되면서 사람의 손이 닿아야 완성도나 완벽도가 높아지는 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까지도 이미 AI의 활용으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문창성의 극대화를 느끼는데 AI의 학습능력은 상상 이상이어서 엘리트들의 수호성인 문창성(文昌星)이 무색하다. 자주 감명을 할 때, 문창성이 뛰어난 사람은 보통 공부의 神(?)이라고 할 만큼 학습효과가 좋고 시험에 능하다.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엘리트 입신양명의 등용문인 고시에 유리하다.

전통시대에서는 개인의 출세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AI가 인간의 고급 두뇌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해 낸 이후 과거제도의 출현을 가져왔고 또 과거제도가 말로 사회 엘리트 양성의 중요한 원천이었고 산업사회에 접어든 근대 이후에는 기업의 탄생과 더불어 인정받는 인력 조달의 장이었는데 말이다. 이렇게 되니 대학을 가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다. 대학입학과 졸업은 문과나 이과를 막론하고 출세의 밑바탕이며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본이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재양성의 요람이었는데 근간에는 이러한 의미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대학입학에 목숨 걸던 역사도 사라질 지경이다. 이세돌 고수가 알파고에 무너질 때도 시린 가슴을 쓸어내렸었지만, 그때만 해도 설마 설마 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어찌해야 하나!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9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9	9	1	7	6	2	8
7	8	2	9	2	6	8	9	1
9	6	1	8	8	2	9	2	7
9	7	2	2	8	1	9	6	8
2	8	9	6	7	2	1	8	9
6	1	8	8	9	9	2	7	2
8	9	6	7	9	8	2	1	2
1	2	8	2	6	8	7	9	9
2	9	7	1	2	9	8	6	6

9	7	1	8	9	2	6	8
2	8	2	8	9	6	7	1
6	8	9	1	2	7	2	8
7	9	8	6	8	2	9	1
9	1	2	2	7	9	6	8
8	2	6	9	8	1	9	7
1	2	9	7	2	8	9	6
2	8	8	9	1	9	8	7
8	9	7	2	6	8	1	9

와인시장, 바닥 vs 재고효과… 경기침체에 저가와인 인기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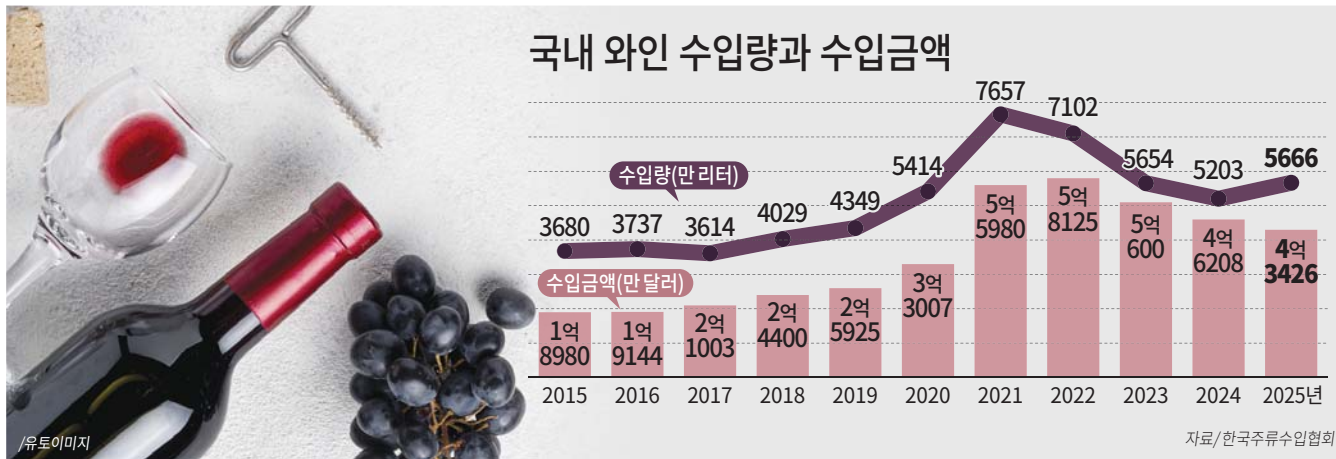
국내 와인 시장이 경기 침체를 그대로 반영했다. 작년 1.0% 경제성장률에 지치고 고단하니 술은 더 마셨지만 병당 단가는 내려갔다.

와인 뿐만 아니라 수입 주류업계가 다같이 올상이다. 수입맥주가 현상 유지를 했을 뿐 하이볼을 등에 업고 살아나는 듯했던 위스키도 인기가 완전히 꺾여버렸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해도 작년 와인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와인 소비가 뒷걸음질을 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5년 와인 수입 규모는 4억3426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반면 수입된 와인은 5666만 리터로 물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저가와인이 잘 팔렸단 얘기다. 병당 단가를 보면 전년 대비 15% 안팎이나



낮아졌다.

수입규모는 팬데믹 영향으로 와인 열풍이 불면서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1년 69.6% 급증했지만 2022년 3.8%로 주춤더니 2023년 -12.9%, 2024년 -8.7%, 2025년 -6% 등 내리막이 이어졌다. 다만 물량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해석은 분분하다. 먼저 국내 와인 시장이 바닥은 지났다는 시각이다.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수입 규모 자체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물량은 오히려 늘어났으니 말이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너도나도 1만원 미만의 자체 브랜드(PB) 와인을 내놓는 등 저가와인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제대로 된 품질과 만족감을 주는 프리미엄 와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반면 쌓인 재고 효과일 뿐 국내 와인 시장의 부진은 더 심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수입주류업계 관계자는 “통계는 들어온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실제 판매 물량과는 다르다”며 “계약 관계나 개런티 물량 등이 있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많이 줄지 않았지만 소화하지 못한 재고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업장을 중심으로 소비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 통관도 못 시킨 물량이 보세창고에 쌓여 있다”고 전했다.

위축된 시장에서도 승자는 있는 법. 작년에도 불타나게 팔린 와인이 있다. 2024년에 이어 화이트와인이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를 주도한 와인

은 뉴질랜드였다.

레드와인은 수입규모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한 반면 화이트와인은 13.4% 증가했다. 화이트 와인은 전년 성장률(8.4%)를 크게 웃돌며 성장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수입물량 기준으로는 24.6%나 늘었다. 화이트 와인의 비중은 와인 열풍이 불던 2021년 23.8%에서 2025년 36.4%까지 높아졌다.

주요 국가 가운데 수입이 늘어난 곳은 뉴질랜드와 스페인 두 곳이다.

뉴질랜드는 수입 금액이 전년 대비 51.9%나 급증해 호주와 스페인을 제치고 수입 상위 톱 5안에 들게 됐다. 물량 기준으로는 무려 80.1%나 늘었다. 유럽이나 미국, 칠레 와인에 비해 기존 수입 물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분명 눈

여겨 볼만한 수치다.

뉴질랜드 와인의 선전은 수입사와 소비자의 이해가 모두 맞아떨어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고 산뜻하게 즐길 수 있는데다 소비봉 블랑이라는 대표 품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와인이었다.

수입사 입장에서는 뉴질랜드가 환율 측면에서 유리했다. 유럽 환율은 작년 무섭게 올라 1700원을 넘어섰고, 미국 달러 환율은 1500원만 안 넘으면 다행인 상황인데 뉴질랜드는 3~4% 절상에 그쳤다.

환율이 오른다고 와인 가격을 바로 올릴 수도 없으니 유럽이나 미국보다 뉴질랜드 와인을 한 병 더 파는게 이득이었다.

성장폭은 크지 않지만 스페인 와인도 깜짝 성장했다. 수입규모와 물량 모두 각각 1.2%, 2.1% 늘었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스페인 와인이 다른 유럽 국가 대비 품질 대비 가격이 좋고, 템프라니요와 모나스트렐 등 스페인 토착품종은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며 “스페인은 국가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다양한 기후, 다양한 테루아가 존재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다”고 설명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日서 ‘KCON’ 첫 막… K-경험 확장 연결

CJ ENM, 체류형 콘텐츠 강화

K-POP을 중심으로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집약한 글로벌 페스티벌 ‘KCON(케이콘)’이 2026년 일본에서 올해 첫 막을 올린다. CJ ENM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KCON JAPAN 2026’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KCON은 K-POP 공연을 넘어 K뷰티·K푸드·K콘텐츠 등 연관 산업을 연결하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일본은 KCON의 첫 아시아 개최지이자 매년 안정적인 관객 동원을 기록해온 핵심 시장으로 CJ ENM은 일본 개최를 통해 올해 글로벌 투어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POP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KCON은 팬덤 기반의 오프라인 경험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과 미국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음악뿐 아니라 한국식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체험하는 구조로 확장되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CJ ENM은 올해 팬 참여형 프로그램과 스테이지 구성을 강화해 체류형 콘텐츠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와 함께 1차 아티스트 라인



KCON JAPAN 2026_1차 라인업. /CJ ENM

업도 공개됐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TEAM을 비롯해 신인 그룹 알파드라이브원,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코르티스, 일본 인기 그룹 INI와 JO1, 최근 오리콘 신인 랭킹 상위권에 오른 TWS 등이 무대에 오른다. 추가 라인업은 추후 공개된다.

한편, KCON은 지난해 5월 개최된 ‘KCON JAPAN 2025’에서 KCON은 오프라인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 이어 8월 ‘KCON LA 2025’에서는 미국 LA시로부터 2025년 8월 1일을 ‘KCON Day’로 지정받았다. ‘KCON LA 2026’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LA에서 개최되며, 전세계 K-POP 팬들이 함께하는 또 하나의 글로벌 축제를 예고한다.

롯데마트 문화센터서 ‘두쫘쿠’ 직접 만든다

롯데마트 문화센터가 22일부터 전국 59개 점포에서 봄학기 회원 모집을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봄학기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 유행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강좌 신설이다. 특히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쫘득 쿠키(두쫘쿠)’를 직접 만들어보는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를 1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해당 강좌는 피스타치오, 마시멜로 등 핵심 재료를 활용해 아이들

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은평점과 롯데몰 수지점 등 전국 50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영유아를 둔 부모를 위한 강좌도 대폭 강화했다. 롯데마트는 어린이집 조기 하원이 찾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의 영아 대상 강좌를 지난 겨울학기 대비 약 20% 늘렸다. 0세부터 36개월까지 월령별 발달 단계에 맞춰 애착 형성, 신체 활동, 사회성 발달 등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해당



롯데마트 문화센터가 제공하는 두쫘쿠 베이킹 일일 클래스. /롯데마트

시간대 수강생에게는 1만원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네이버플레이스로 ‘日 맛집 예약’ 더 쉽게

네이버는 일본 최대 규모 음식점 정보 플랫폼 타베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본 현지에서 예약 가능한 맛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맛집 예약’ 검색 필터를 네이버 플레이스에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타베로그는 일본 전국 89만여 음식점의 내부 전경과 실제 제공 음식 사진, 약 8500만 건에 달하는 현지 사용자 리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맛집 검색·예약 서비스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 타베로그와 제휴를 맺고, 플레이스 서비스와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일본 주요 도시의 식당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일부 식당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타베로그로 이동해 실시간 예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용자가 개별 식당의 상세 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맛집 예약’ 필터만 선택하면 타베로그 예약이 가능한 식당만 모은 리스

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도쿄 맛집’ ‘삿포로 맛집’ ‘오사카 맛집’ 등 일본 주요 도시의 맛집을 검색하면 전체 음식점 목록이 노출되며, 리스트 좌측 상단의 ‘맛집 예약’ 필터를 클릭할 경우 예약 가능한 식당만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15일부터는 일본 내 지역 분류도 추가돼 탐색 범위가 더욱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도쿄와 오사카 등 도시 단위 검색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주쿠와 도톤보리 등 한국인 여행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특정해 예약 가능한 식당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22일 다보스에서 젤렌스키와 회담 예정 /사진 뉴시스

▲중일 갈등에 히토류 확보 우려된 日…EU와 공급망 민관 협력 추진

▲“中, 주총칭 일본총영사 아그레망 지연…1개월 이상 공식”

▲설문조사 결과 중남미 주민들 대부분 마두로 제거 지지

▲나토 사무총장 “트럼프와 그린란드 주권 문제 논의 안해”

▲日, 관세에 대미 무역흑자 12.6%↓…수출도 5년 만에 감소



햄버거
‘가성비 외식’으로
소비불황 속 성장세
나

metro®

Life

제약바이오
“약가개편 강행 땀
제조생태계 붕괴”
L2



비은행 역량 확보, 디지털금융 주도… 변화 속 혁신 시동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하나금융그룹

◆ 전문성·리스크 관리로 체질 개선

함영주 회장은 비은행 부문의 역량강화를 과제로 꼽는다.

하나금융을 살펴보면 하나증권은 지난해 3분기 누적순이익이 16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하나카드도 같은 기간 1844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7.8% 줄었다.

함 회장은 “증시하락 등 우호적인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룹 비은행 부문의 아쉬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본업 경쟁력 강화와 리테일 분야 확대 등 추진중인 과제들이 빠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속에서 역량확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나자산신탁은 부동산 활황기에 손쉽게 수탁고를 올릴 수 있었던 책임준 공형 신탁이라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쌓아온 전문성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했다”며 “이러한 사례는 위기극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 실적이나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기보다, 각 계열사가 감내 가능한 위험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그룹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만연한 무관심과 무사안일을 경계하고, 위기 국면일수록 리스크 관리와 실행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영진의 메시지다.

◆ 생산적 금융 전담 체계 구축

하나금융은 정부의 정책과제인 ‘생산적 금융’에 발맞춰 최적의 전문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3인 부회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혁신을 비롯해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업무 분장을 새롭게 했다.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생산적 금융부문’을 신설했다. 기존 시너지 부문 산하의 기업금융투자은행(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확대해 투자·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재편했다.

투자·생산적 금융부문에는 직속의 생산적금융지원팀을 신설해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관계사 간 협업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지속성장부문’을 신설한다. 부문 산하에는 ‘글로벌본부’,

하나금융그룹은 새해 경영 화두로 ‘자산관리의 역량 확보’와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최적의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체구가 작고 힘이 부족하다면 남들보다 더욱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절실하고 절박한 각오로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둘째줄 가운데)이 스마트 홍보대사들과 함께 ‘하나’를 의미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자산관리·생산적금융 전문 조직으로
비은행 부문 강화… 새로운 기회 확보
AI·디지털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 강화
투자·생산적 금융부문 신설, 실행력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선제 대응
발행부터 유통·사용까지 생태계 구축
투자처 발굴 등 투자 역량 ‘핵심과제’
보안체계 고도화 위한 기술역량 확충

‘브랜드본부’, ‘지원본부’, ‘리테일본부’, ‘WM본부’, ‘자본시장본부’ 등을 편제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투자·기업금융·비은행 계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생산적 금융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그룹 차원의 상시적 사업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 생산적 금융·스테이블코인 주도

함영주 회장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하나금융이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미국달러, 원화, 금 같은 특정 실물자산이나 법정 화폐에 가치를 일대일로 고정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디지털화폐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미리 준비해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함 회장은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지금, 주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참여자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실생활과 연계하고,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와 제휴해 다양한 코인 유통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기술 연계 및 통화, 외환 관련 정부정책 공조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물고 시장을 선도하는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조직 내부의 역량 확보도 필수적이다.

함 회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기에 좋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는 투자 역량의 확보는 조직의 존망을 가르는 핵심과제다”면서 “디지털 금융을 주도하고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기술역량의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기 신사업이 아닌, 투자·기술·보안 역량을 결합한 중장기 금융 인프라로 육성하겠다는 경영 전략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잇는 주도권 경쟁에서 한발 앞서겠다는 의지도 담겼다는 평가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미국 출국’ 이정후, 서류 문제로 LA 공항에 1시간 가량 억류
▲‘학폭 논란’ 키움 신인 박준현, 끝내 사과 없이 스프링캠프 출국
/사진 뉴스스

▲장애인 동계체전 27일 개막…패럴림픽 메달 기대주 출격
▲원헌, ‘김민재 퇴장’에도 UCL 16강…리버풀·바르사도 승리

▲하나카드, PBA 팀리그 파이널 통산 두 번째 우승…김가영 MVP
▲홍명보호, 북중미월드컵 베이스캠프로 ‘고지대’ 과달라하라 확정